

보리수동산을 후원해 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용 하 한 의 원

네명의 전문한의사 원장님이 공동으로 진료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한의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한의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한의원이 되도록 저희 용하한의원 일가족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하한의원의 3단계 특수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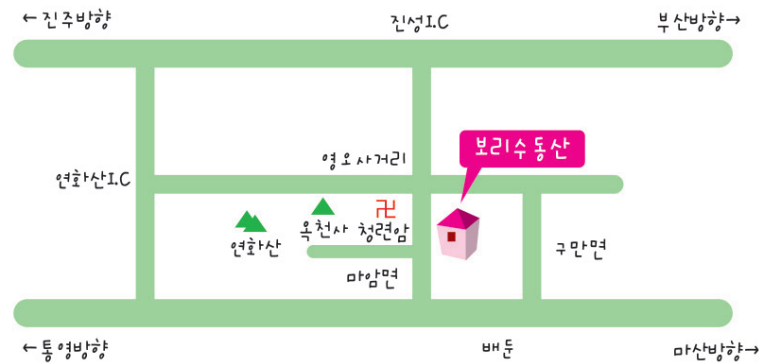
- 1단계 : 혈액정화
- 2단계 : 오장육부 기능조절
- 3단계 : 면역력 강화

용하한의원의 전문클리닉

- | | | |
|-----------|-----------|------------|
| 1.중풍예방클리닉 | 2.여성클리닉 | 3.과민성대장클리닉 |
| 4.회복클리닉 | 5.만성피로클리닉 | 6.척추관절클리닉 |
| 7.한방피부클리닉 | 8.간해독클리닉 | 9.간질클리닉 |
| 10.알러지클리닉 | 11.수험생클리닉 | 12.스트레스클리닉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5-1(상공회의소 계량중학교 뒤편)
TEL : (055) 633-3114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토 만일회

638-982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633-1번지
전화 : (055) 673-5321 팩스 : (055) 673-5347
홈페이지 www.borisudongsan.or.kr

www.borisudongsan.or.kr

좋은 인연으로 동산 가득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초록연꽃

불기 2555년 / 2011(통원 12호)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토 만일회

마음의 주인이 되라

법정스님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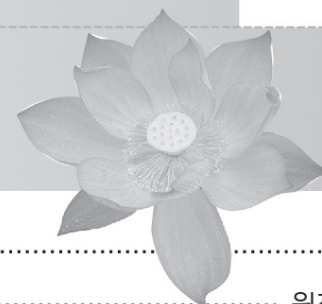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잃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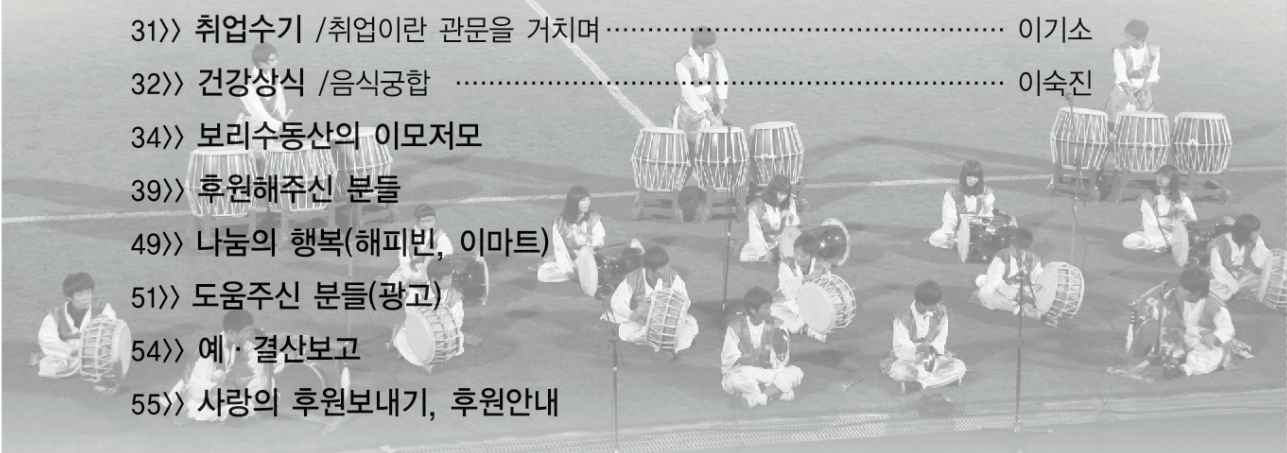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2011년 통권12호 초록연꽃



- 02>> 햇살마루 /마음의 주인이 되라 법정스님
- 04>> 산중일기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원장 승욱스님
- 05>> 발자취 /연혁, 아동현황
- 06>> 처음처럼 /추억의 동산 만들기 이미영
- 07>> 자원봉사수기 /동산과의 인연 나향 박정민
- 08>> 체험보고서1 /재밌는 장승 만들기 유승민
- 09>> 체험보고서2 /뜻 깊은 공연을 마치고 김광일
- 10>> 보건교육프로그램 /튼튼한 내 몸을 만드는 습관 김광석
- 11>>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성(性)’을 알자! 김한비
- 12>> 약물예방프로그램 /약물이란 김성환
- 13>> 초록연꽃특집 /열정의 경남FC U-15 박철우
- 16>> 체험보고서3 /설날 오슬기
- 17>> 해외연수기1 /프랑스를 가다..... 박정길
- 20>> 부처님이야기/염화미소, 가섭존자 원각스님
- 22>> 초록연시/4, 5, 6, 7, 8, 9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신영미, 전주영,
박의렬, 이상민, 박경주, 한승민, 신영주, 서희원, 김철영, 김한비, 이기소, 정다운, 신경이, 오슬기
- 28>> 해외연수기2 /경남 모범청소년 선진문화탐방을 다녀와서 김정희
- 31>> 취업수기 /취업이란 관문을 거치며 이기소
- 32>> 건강상식 /음식궁합 이숙진
- 34>>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 39>> 후원해주신 분들
- 49>> 나눔의 행복(해피빈, 이마트)
- 51>> 도움주신 분들(광고)
- 54>> 예 · 결산보고
- 55>> 사랑의 후원보내기, 후원안내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글 |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



얼마 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제 이태석 신부가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낸 8년 간의 삶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밤 새워 치료하고, 배울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35인조 브라스밴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등 가난한 이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열정적으로 살았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안다는 것은 행위에 비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 깊이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심오한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데 열을 올리는 것 보다 알고 있는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는데 더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1970년대 가난한 산중 살림으로 매번 시내로 탁발을 하러 나가야만 했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부모보다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역 앞 한 아이와의 만남으로 인해 보리수동산은 시작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적막한 암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가기를 수 차례. 장터로, 터미널로 찾아다니며 데려오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주고 감싸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이 되어 연화산을 놀이터로 자연을 벗삼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 둘 모이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청련암만으로는 공간이나 여건 상 부족한 게 많아 고심하던 중, 산 너머 폐교된 좌련분교를 여러 신도님들과 후원자,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구입하여 지금은 70명의 아이들과 22명의 선생님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늘 변변치 못한 건강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왁자지껄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웃음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불끈 솟아오르곤 한다. 아이들과 함께 차 한잔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문득 내 삶이 연화선차蓮花禪茶 한 모금만큼이나 향기로웠던가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영겁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만나 한술밥을 먹는 지중한 인연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보리수동산 연혁 · 아동현황

보리수동산연혁

1976년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아동보호시작 (주지 승욱스님)
2000년 06월 15일 “구” 좌련분교 임대 (향후 5년간)
2002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설립허가
2002년 10월 24일 “구” 좌련분교 매입
2003년 01월 13일 아동복지시설 신고 (보리수동산)
2003년 07월 20일 카페 1주년 행사
2003년 12월 16일 창원전문대학 산. 학 협동 협약식
2003년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해님이 밤)
2004년 07월 18일 카페2주년 행사
2004년 08월 16일 백두대간 산행
2004년 12월 31일 송년의 밤 행사
2005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지역 어르신)
2005년 07월 17일 카페3주년 행사
2005년 08월 03일 여름불교학교 (4박5일)
2005년 10월 22일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2006년 07월 08일 봉림중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6년 07월 23일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2006년 12월 16일 송년의 밤 행사(꿈+희망=행복)
2007년 05월 03일 창원삼정자초등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07월 21일 거성실업&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10월 14일 카페4주년 & 가을 체육대회 행사
2008년 03월 01일 안양원 증축 중 · 고생 입실
2008년 12월 13일 송년음악회
2009년 09월 16일 경남FC보리수동산 경남FC U-15 고성축구클럽 창단식
2009년 12월 16일 송년축제 행사
2010년 12월 18일 송년축제 행사

참 좋은
연연입니다.

아동현황

구분 \ 연령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타	계
남	2	16	18	15	2		53
여	2	4	5	6	·		17
계	4	20	23	21	2		70

직원현황

구분 \ 직책	원 장	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상담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요원	계
남	1	1		4					1	7
여			1	10	1	1	1	1		15
계	1	1	1	14	1	1	1	1	1	22

추억의 동산 만들기

글 | 미 영



아이를 셋이나 둔 엄마이지만 막상 많은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아이들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가가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크는 만큼 상처가 더 커져간다는 것을 내 아이들이 커가는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배워가는 자세로 임해야겠다.

좋은 추억 특히 어린 시절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만큼 생생한 교육은 없다는 말이 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최고의 가정교육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최고의 사랑은 그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리수동산이라는 예쁜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의 동산을 꾸며 가고 싶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두 달 여 남짓 되어간다 참 좋은 인연의 시작이다.

걱정과 설렘으로 동산의 문을 들어서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하며 밝은 목소리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서 무거웠던 마음들이 한결 가벼워 졌던 것 같다.

아이들을 함께 내마음속에 하나 하나 사랑과 추억을 담아보리라 다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마음을 아낌없이 쓰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아껴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아낌없이 쓰고 시간을 아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다.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받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께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지금의 나에게 정말 와 닿는 글이라 적어 본다.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에게 많은 배려와 친절로 지도해주시는 보리수동산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짐해본다.

동산과의 인연

글 | 나눔의 향기 박 정 민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올해가 불기2555년이다.(동산 카렌다를 보고..)

10여 년 전 나는 불기2544년 마산 불교청년회 회장을 맡아서했다.

그 전까지는 마산가포 결핵병원에 봉사 활동을 1달에 한번, 2달에1번, 분기에1번, 1년에 1번 가던 결핵 환 우듬기 봉사는 명맥이 끊겼다.ㅠㅠ

마불청 회장을 맡고, 마불청 활성화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공리 중에 승욱스님이 운영하는 보리수동산이 지방 방송다큐에 나온 것이다.

이거다 싶었다!

마불청의 활성화와 보리수동산 봉사 활동^^

그때 처음 동행한 가릉님과의 삼사순례와 보리수동산 승욱스님의 첫 만남!!

새삼 가릉님은 잘사시는지 궁금하다.

처음엔 5명 내외로 시작을 했다. 그때는 노보살님과 해병대아저씨로 천사들 30명 정도였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회원도 5~10명이 가게 되었고, 마산불교청년회 멤버인 혜명님과 대하님, 무아님과 의 상의로 무아님은 해오름이라는 교육봉사를, 우리는 봉사에 모토를 주고 "나눔의 향기"라는 독립된 카페를 만들었다. 카페 만든 건 혜명님이 하시고, 봉사 활동은 주로 내가 도맡아서했다.

그때 좀 전 사무장님도 동수도 처음 만났고, 그 뒤에 동산은 사회복지법인이 되었다.

내가 회장할 때는 동산에서 오전은 청소를, 오후는 아이들과 축구를 많이 했다.

물론 1년에 1~2번은 나들이도 가고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향 회원들이 동산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진다.(세월에는 장사 없다.)

2년 전부터는 한자급수 봐주기를 하고 있다.

처음엔 수현이와 주형이로 시작해서 이제는 20명으로 늘었다.

내일 모레면 급수를 19명이 치는데 걱정이다.

사실 한자급수 봐주기를 시작한 것은 10여년 봉사활동하면서 하는 걸로 만족해야겠지만 나나 아이들에게 남는 걸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자를 시작했다.

사실 한자보다는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1달에 1번가는 우리로서는 한자나 예체능밖에 해줄것이 없다.

이번 달은 2명(상민,수현)공인급수에 응시한다. 내가 다 떨어진다.

얼마 전 TV에서도 봉사에 대해서 나왔다. 귀가 쫄긋했다. 재능봉사가 나왔다.

복지시설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나머지 빈 곳을 채워 주러 가는 것이다.

도시와 떨어져 있는 동산 아이들에겐

학습봉사, 나들이봉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불가에서도 삼시 중 법(가르침)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끝으로 승욱스님의 정토만일회처럼

우리 모두 30년(365*30)동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시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향카페지기 선근 두손모으다



재밌는 장승 만들기

글 | 유 승 민



우리는 장승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보리수동산 차를 탔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고성 탈박물관에 도착했다. 나는 전에 장승 만들기를 이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정말 장승 만들기가 재미없다고 느껴졌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하기 싫은 마음으로 갔다.

도착을 하고 나서 우리는 조를 편성해서 조끼리 모여 장승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장승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실전으로 들어갔다. 오전에는 연습으로 장승 하나를 만들었다. 연습으로 만든 장승은 너무 못나게 보이고 다른 장승처럼 실감나게 생기지도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보리수동산에 가져갈 장승을 만들었다. 오전에 연습했던 덕분인지 오전에 만든 장승보다는 더 잘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더 잘 다듬었다. 마침내 장승을 다 만들고 난 후에는 가슴이 뿌듯했다. 그리고 주위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장승들과도 제법 비슷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이상하게도 탈박물관에 갈 때는 기분이 안 좋았고 하기도 싫었는데 만들기를 할 때에는 장승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다.

장승을 다 만들고 그것을 동산에 가지고 올 때는 마음이 뿌듯했다. 저번에 만들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보람되었던 것 같다. 동산에 있는 내 장승을 보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에도 장승 만들기를 하러 간다는데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정말 재미있었고 보람찬 하루였다.



뜻 깊은 공연을 마치고

글 | 김 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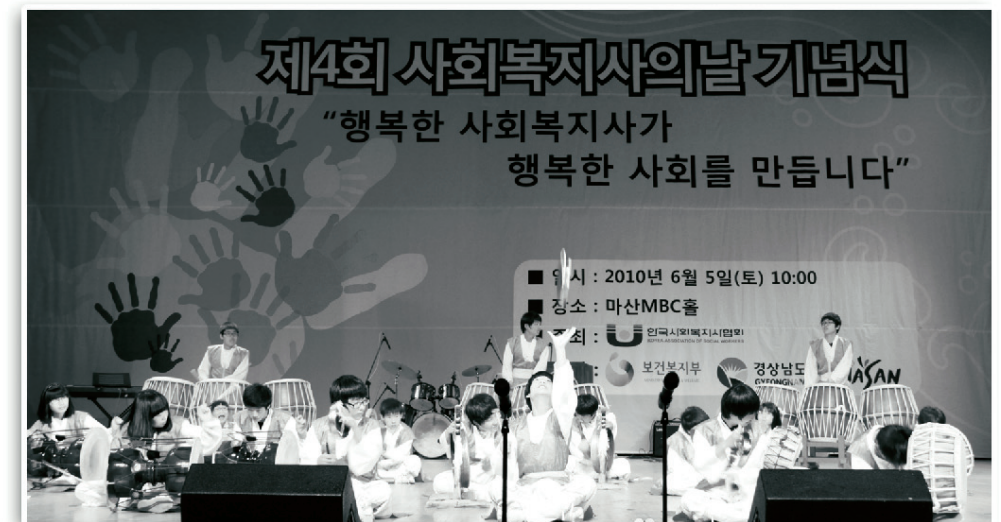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우리는 대한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의 초청으로 마산 MBC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있듯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위한 날이 있다. 우리는 우리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살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을 해서 인지 몇 번의 실수를 하였다.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관객석에서 박수와 호응으로 우리들의 실수를 감싸 주셔서 나는 정말 감동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협회장님 등 몇 분의 말씀을 들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진 점은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고성으로 돌아와 고기를 먹었다. 우리 품물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식을 하니 꼭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뜻 깊은 날이었던 것 같다.



튼튼한 내 몸을 만드는 습관

글 | 김광석



학교에서 돌아와서 강당에 모두 모여 보건 교육을 받았다.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여 있으면 그 음식물이 당분으로 변해서 세균이 그것을 먹고 산화물질을 배설하여 이가 녹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충치가 생기는 순서를 알 수 있었고 식후나 간식을 먹은 후, 자기 전에 양치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은 말인데 양치를 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균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치를 할 때는 '회전법'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 하고, 헛바닥도 깨끗하게 칫솔질하면 입 냄새가 덜 난다고 한다. 손 씻기도 비누칠을 해서 씻으면 질병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다. 과연 내가 꾸준히 손을 씻고, 식 후나 간식 먹은 후, 자기 전에 양치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올바른 식사에 대해서 배울 때 내가 식사를 할 때 반찬이나 국을 어떻게 먹는지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나의 식습관은 완전히 틀린 방법이었다. 나의 식습관은 내가 먹기 싫은 것을 받지 않았고 국은 먹기 싫으면 버렸다. 보건 교육을 받은 후에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편식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손 씻기와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여야 하는데 굳게 마음을 먹고 지켜야겠다.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 질 때까지는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



'성(性)'을 알자!

글 | 김한비



오후 3시, 중학생만 강당에 모여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었다. 처음에는 남자, 여자 성기 명칭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요즘 학생들이 바르게 부르지 않고, 좋지 않게 지어서 부른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여자 월경주기와 남자들의 사정에 대해 배우는데 알아야 할 것이지만 계속 뭔가 부끄럽고 웃음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오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성교육 때보다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또 평소에 몰랐던 성폭력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다.

특히 여자들의 생리 관리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바른 관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자위행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 자위행위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나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선생님과 즐겁게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가졌고,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고, 남자와 여자의 행동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몰랐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알고, 성폭력이라든 성에 대해서든 잘 알아둬야 될 것 같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지식을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보람된 하루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약물이란

글 | 김 성 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받았다.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교육이었지만 다시 듣게 되었다.

약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다. 우리가 아는 약물에는 술, 담배, 신나, 본드 등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약과 다른 많은 물질들이 약물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약물 중에서도 술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는데 전에 담배에 대해서 배운 터라 약물을 잘 못 복용하거나 술 같은 것도 많이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아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체험도구(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는 안경)를 사용하니깐 똑바로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술 하나만 가지고도 몸의 모든 곳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을 마시면 몸의 모든 곳에 피해를 입지만 그중에서도 간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한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받고 술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리고 담배도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열정의 경남FC U-15 고성

글 | 박 철 우



“백성은 가난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 문득 이 글귀가 가슴에 뜨거움으로 남는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경남 FC U-15 고성 팀이 추구하고 실천하는 팀에게 매우 적절한 답안이다. 산업과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함과 동시에 또 다른 빈부 격차는 이미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많아졌고 아동 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하기만 하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현대 사회는 학습과 과외라는 강요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아이들 권리 까지 빼앗아 간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는 의미는 후순위에 밀린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또 다른 소외와 박해로 이중적 고통으로 내 물린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축구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매우 즐기는 국민적 스포츠다. 어디 공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구가 울고 웃는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한다. 진정 축구는 알 수 없는 마법이다. 축구를 하고 싶어도 대리 만족으로 살며, 성장하는 저소득층 아동은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 해진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사회적 관심과 구조에 있다. 축구는 많은 장애를 넘어야 할 운동이다. 운동장, 돈, 시간, 지도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고 대상을 저소득층, 차상위 아동, 모자 가정, 지역 아동 26명으로 창단하였다. 그 열정만큼은 대단하였다. 방과 후 흠뻑지 투성이의 마암초등학교 운동장과 개천초등학교 운동장, 그



래도 부러울 것이 없는 마냥 신이 났을 뿐이었다. 차량 이동은 보육원 차량과 지역 농부의 차량으로 운행하며, 경비는 지역 젊은 분들의 후원으로 시작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타고난 체력과 율분들, 달리고 싶은 욕구는 많은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러면서 3년이 지나고 전국대회 8강, 4강, 준우승 등 많은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과 자신감, 스포츠가 지닌 교육적인 효과 까지 진정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축구를 통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은 어느 팀도 따라 올수 없는 우리들만의 장점이자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특히 모범상, 페어플레이어상은 장차 중등부를 창단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2009년 8월 전국 클럽대제전 강진대회는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러한 결과로 프로축구 경남FC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존의 동고성 축구팀을 재창단하는 경남FC U-15 고성이가 탄생하는 것이었다. 구단에서는 기술적 지원과 운동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들도 지원해주며 아이들의 잠재력과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줄무늬가 선명한 경남FC유니폼, 형들과 같은 옷을 입고 뛸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책임감이 있다고 하였다. 아마 마음이 짐부터 달라진다는 의미일 게다. 그래서일까 올해는 학원 축구부와 함께하는 2009~2010년 중등부 축구리그도 참가하였다. 1년간 리그에 참가하면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모든 게임을 부상 없이 소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감격한 일인가. 그리고 다시 강진 대회에 참가하여 4강에 오르는 팀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



는 축구를 통하여 성적보다 더욱 위대한 가치를 배웠고 얻었다. 아동 청소년기의 혼란기를 이렇게 운동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으며, 배려와 규율을 배우고 상대의 소중함을 적지 아닌 '벗'이라는 작은 사회를 배웠다. 그러면서 참여의 기회를, 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게 되었으며, 또한 당당히 노력이라는 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일도 아이들이 인성과 인품, 인격적인 학습과, 파란 운동장과 하늘을 보며 눈이 부시게 아름답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특히 오늘의 이러한 땀과 노력들이 자양분이 되어 사회가 원하고 사회를 만드는 일원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진출 하더라도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기억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하여 멀리 동해, 울산, 부산, 김해 등 많은 자원 봉사자님, 열악한 환경에도 무한한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는 승욱스님, 경남FC 구단, 영천FC회원님, 보리수동산 사회복지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설 날

글| 오슬기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문화 체험을 했다. 보리수에 남아있던 아이들과 함께 강당에 모여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차례를 지냈다.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차례 지내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다 같이 절을 하고 몇 명이 다시 앞으로 가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차례상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 큰 틀이 있었다. ‘홍동백서’라고 붉은 음식은 동쪽에 두어야 하고 백색음식은 서쪽에 두어야 한다. ‘어두육미’라는 것은 생선은 위쪽에 고기는 아래쪽에 올리는 방법으로 차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이라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다 같이 차례를 지내니 색다른 느낌이었고, 차례상 올리는 방법 같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음식을 나눠먹고 어지러워진 주변을 정리한 뒤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설날 놀이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즐겁게 보냈다. 특히 윷놀이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쌍의 팀이 먼저 윷놀이를 하고 있으면 남은 팀은 제기차기를 했다.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다른 팀들은 대결을 했다. 우리 선재관 팀은 처음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졌다. 열심히 했는데도 저버려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처음엔 이겼으니까 그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중에는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졌다는 사실은 금방 잊어버렸다. 윷놀이가 결승전을 하는 동안 제기차기 부분에서는 개인전 부분이 진행되었다. 나도 참가하고 싶었지만 제기차기는 두 개 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서 구경만 했다. 다른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구경하면서 엄청 웃었다. 설날 놀이 체험을 끝내고 주변을 정리했다.

그 뒤 마지막으로 준비된 이벤트인 노래방을 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신나게 부르며 구경하는 사람들은 노래에 호응하며 분위기를 살렸다.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코러스도 넣어 주면서 모두가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함께 모여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하루는 정말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다.



프랑스를 가다

글| 박정길



대학생활이 벌써 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대학생활 1년 동안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정말 많다. 여러 좋은 경험들도 많았고 좋은 추억들도 많았다.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입학식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입생이 들어온다. 그동안 나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1년 동안 변한 것이 적지는 않은 것 같다.

대학생활은 나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많은 연주를 해 보았지만 이번엔 특별했다. 물론 여름방학 때 제주도 국제 관악제에 계명대학교가 초청을 받아 연주를 치루고 왔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대한민국 국제 관악제에 초청받아 연주를 하였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연주 팀은 프랑스를 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정말 접하기 쉽지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언제 한번 프랑스를 갈지 모르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다.

1주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었고 우리는 새벽부터 일찍 프랑스로 출발하게 되었다. 우리가 연주할 곳은 트망시의 문화예술회관인 팔레 데 콩그레에 드라 킬투란 홀이었다. 트망 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경주 '트망 24시간 그랑프리 대회'(Le Mans 24 hours)로 유명하며 인구 20만 명 정도로 대학과 문화예술이 발달한 프랑스 북서부의 중소도시다. 트망 시립극장의 정식 초청은 시주관의 공식 음악축제에 대학 밴드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정기 연주회와 야외 음악회를 열어 수준 높은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계명대 심포닉밴드는 2007년 12월 대만 국제관악제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었고 2008년 제주 국제관악제에도 참가했으며 2009년에는 서울 예술의전당과 폴란드 순회 연주 등 공연을 펼쳐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강일 교수님께서 계명 심포닉 밴드를 이끌어 가시며 매년 연주회 때마다 섬세한 연주로 좋은 평이 나오고 있다.

우리 연주팀은 트망시에서 이틀간 생활을 했다. 리허설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은 자유 관광 시





간으로 주어졌다.

트랑시는 정말 아름다웠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던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건물들이 수두룩 들어서 있었고 인상 깊은 장소는 시장 이었다. 저마다 바게트를 하나씩은 들고 가고 있었고,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와인들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정말 웃음 짓게 했던건 강아지의 대변 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애완견을 정말 많이 키웠다. 심지어 노숙자들도 강아지를 꼭 한 마리씩은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신발 밑에 강아지의 변이 묻기 마련 이었다.

연주날 처음 와보는 외국에서 멋진 홀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무척 설레었다. 무대 뒤에서 관객석을 바라봤는데 객석이 한자리도 남김없이 꽉차있었고 사람들도 기대

에 차있는 눈빛 이었다. 관객 분들이 저렇게 설레는데 우리들은 더욱더 설레고 떨리기까지 했다.

연주는 20세기 러시아 작곡가인 하차투리안의 춤곡 모음곡인 '마스카라데'(Masquerade)를 시작으로 영국 작곡가 홀스트의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1번'의 발췌곡 등을 연주한다. 또 김하균이 편곡한 '아리랑'이 연주되고 계명대 교수인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님이 특별출연,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의 아리아 '아! 나는 그 꿈속에서 살고 싶네'와 한국 전래 민요를 편곡한 가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르셨다. 또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을 연주하였다.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청중들이 가볍게 허밍으로 따라 읊을 정도로 연주에 심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객석은 정말 감동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그 많은 청중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기립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었다. 그때 난 내가 무엇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것인지도 무대에서 나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예술회관 관장인 브뤼노레 관장은 계명 심포닉 밴드의 실력은 이제 트랑 시민들에게 각인되었고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다음 연주회를 기획하자고 제안 했다고 한다.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님께 프랑스 및 유럽 지역 도시들을 대상으로 독창회를 함께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의하기도 했다. 트랑에서의 연주는 음악은 언어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는 뿌듯하면서도 행복한 연주회였다.

연주가 끝나고 우리가 프랑스에 가게 된 진짜 목표 하나는 달성하게 되었다. 이제는 프랑스의 중심인 파리에 가서 마음껏 관광을 할 수 있었다.

파리에서의 관광은 정말 잊으려 해도 있을 수가 없었다. 파리하면 생각나는 에펠탑도 우리들 눈앞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뿐 이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며 그 사람들 에게는 평범한 모든 것 들이



우리 눈에는 신기해 보였고 영화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파리의 지하철은 우리의 서울 지하철과 같이 노선이 아주 많았다. 지하철 문도 우리와는 다르게 수동으로 열어야 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햄버거가게 등 화장실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해서 난감 했던 적도 있었다. 또 한번은 숙소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에 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다. 알고 보니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던 것이다. 유럽 샤워실은 커튼이 하나씩 있는데 그 커튼을 안쪽으로 쳐서 물이 세지 않게 하고 샤워를 해야 물이 세어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모르고 샤워를 했더니 정말 한강이 되어 있었다.

파리에 도착해 처음으로 간 곳은 몽마르트 언덕이었다. 산이 없는 프랑스는 이 몽마르트 언덕이 가장 높

다고 한다.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크레 코르 성당은 정말 건물이 섬세하며 아름다웠다. 이 곳은 파리의 시내가 모두 보일 정도로 정말 경치가 좋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었다.

그리고 에펠탑을 갔는데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고 밤이라 에펠탑에 불이 켜져있는 광경을 볼수 있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에펠탑은 정각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이번기회에 에펠탑을 올라가기로 했다. 에펠탑 위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곳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정도 였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 노트담성당,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등을 관광하였다. 파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관광지 였기 때문에 글로 설명하기는 정말 힘든 장면들이 많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여행을 다녀오고 많은 생각 들을 하였다.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 기회는 오는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 학기가 새 학년으로 시작 하는 만큼 새로운 목표들도 많다. 그런만큼 내 자신을 갈고 닦아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처음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서 이번처럼 좋은 경험들을 쌓아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겠다.



염화미소, 가섭존자

글 원각스님

이번호에는 ‘염화미소(拈華微笑)’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는 가섭존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선종(禪宗)에서는 이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서 벌어진 ‘염화미소’의 일화를 스승과 제자의 법의 전승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섭존자는 두타제일(頭陀第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일아함경』 제3권에 보면, 10대 제자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가섭존자를,

얻기 어려운 행인 12두타(頭陀)를 행하는 이는 바로 마하가섭(摩訶迦葉) 비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타란 인간으로써 살아가는데 필수인 의(衣)·식(食)·주(住)에 대한 소유를 최소화하여 탐착(貪著)을 떨어버리고 수행의 엄격함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잠을 취하지 않으며, 항상 숲에서 머무르는 것 등의 12가지 행(行)을 말합니다. 또한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장자로서 불멸후에는 교단의 중심이 되어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결집하는 등 불법이 후세에 전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가섭존자가 ‘두타제일’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일화를 중심으로 가섭존자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라열성(羅閱城)의 가란다죽원에서 대비구들 5백 명과 함께 계셨다.



그 때 마하가섭은 아련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때가 되어 걸식할 적에는 가난한 집과 부자를 가리지 않았으며, 한곳에 한 번 앉으면 끝끝내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나무 밑이나 한데나 비고 한적한 곳에 앉았으며, 다섯 가지 누더기 옷을 입고 세 가지 법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무덤 사이에서 수행을 하였다.

혹은 하루 한 끼니만 먹는데 그것도 점심때에만 먹었으며 두타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는 가장 많았다. 이 때 존자 마하가섭은 식사를 마친 뒤에 곧 어떤 나무 밑으로 가서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서 다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세존에게 나아갔다. 그 때 세존께서 멀리서 가섭이 오는 것을 보고 곧 말씀하셨다.

"잘 왔다, 가섭아."

가섭은 세존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그대는 나이도 많고 노쇠하여 기력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부터 걸식과 온갖 두타행을 중단하고 또 여러 장자의 공양과 그들이 주는 옷을 받도록 하라."

가섭이 대답하였다.

"저는 여래의 분부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오면, 만일 여래께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無上正眞道]를 이루지 못하셨을 적에 저는 벽지불(辟支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지불은 아련야행을 행하면서 때가 되어 걸식할 적에는 가난한 집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한곳에 한 번 앉으면 끝끝내 옮기지 않았으며, 나무 밑이나 한데나 혹은 비고 한적한 곳에 앉았으며, 다섯 가지 누더기 옷을 입고 세 가지 법의를 지녔으며, 무덤 사이에서 수행하였고 끼니는 하루에 한 끼니만 먹되 점심때에만 먹었으며, 또 두타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본래 익힌 것을 버리고 다시 다른 행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구나, 가섭아. 그대는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어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널리 일체의 천상(天上)과 인간(人間)을 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가섭아, 그 두타행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 내 법도 또한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 하늘 세계[天道]는 더욱 늘어나고 세 갈래 나쁜 세계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또 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아나함(阿那含)의 3승도(乘道)를 성취하여 모두 세상에 존재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은 수행을 하되 가섭이 익혔던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 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¹⁾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행했던 두타행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권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증일아함경』 제5권, 일입도품 05경을 보면 12두타행을 설하시면서 두타행을 비난하는 것은 부처님 자신을 비방하는 것과 같고 두타행을 칭찬하는 것은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타행을 가장 치열하게 실천하는 가섭존자와 같이 행하라고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수필집 『무소유』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정스님의 1주기가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12두타행으로 정형화 된 수행은 당시 출가 수행자에게도 소유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더불어 부처님께 귀의한 재가 불자도 ‘무소유’라는 개념의 외연을 자신에게는 한 없이 넓혀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12두타행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자신의 소유를 합리화 시키는 것을 종종 겪게 됩니다. ‘소유의 최소화’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 일 수 밖에 없어도, 그래서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무소유’의 정신을 그래도, 두타행이라는 거울에 지속적으로 비춰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한글대장경중, 『증일아함경』, 제5권「일입도품」



선재관 신영미

봄의 유혹

두근하고 달콤했던 그 날이
봄이 아니었나 싶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금방 그 속에 빠져들어
달달한 꿈을 맛 보게
하였던 것을 보면

언젠가 올 것을 마냥 기다렸던
그 날이 봄이 아니었나 싶다.
세찬 바람에 두영켜
그저 꾸벅꾸벅 지나가던
그 시간들이
나른해진 그 때,
하나씩 떠오르게 했던 것을 보면

늦은 오후 비를 맞으면서도
좋았던 그 날이
봄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들의 선물이 드디어 시작됨이
아주 좋아서였을까
빗방울마저 벚꽃에 머물러
구 모습을 전해주었던 것을 보면



선재관 전주영

따뜻한 봄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따뜻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제일 좋고 따뜻한 봄.
봄에는 예쁜 진달래, 매화, 벚꽃 등으로 피는 멋진 꽃...
봄에는 재밌는 봄 소풍도 간다.
봄소풍을 가면 예쁜 벚꽃이 날리며 꽃들이 방실방실 웃는 멋진 소풍
네가지 계절 중에 제일 좋은 봄.
꽃 중에서도 좋은 벚꽃. 벚꽃은 나무를 감싸고 날아다니고
진달래는 산 바람에 흔들 흔들...
매화는 나비가 가져갈 봄의 사랑스런 꽃
나는 아직 봄에 모르는 게 많다
봄바람은 세계적으로 시원한 봄 바람
사람들은 왜 봄의 삶을 모를까?
하지만 나는 안다.
왜냐면 나는 봄바람이 이렇게 좋고 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
이다.
나는 봄을 마음속에 두다가 답답할 때 봄을 꺼내어 보고 싶다
봄은 역시 이런 거였다.
온 세계에서든 아무도 못 믿는 일이지만 사실로는 봄은 정말 소중한
싱그럽고 따뜻한 봄이다.



미륵방 박익렬

물감

봄이 오면 여러 가지 색을 가진
꽃들이 활짝 웃으면서 피어나고
산과 나무는 푸른 초록색으로 물이 든다

봄이 오면 봄 풍경을 배경 삼아
물감을 들고 푹푹 찍고
산과 나무는 푸른 초록색으로
아름다운 꽃은 여러 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고
싶다.

나는 봄이 오면
물감으로 그린 커다란 그림을 본다.



문수방 이상민

부처님의 꽃

여러분은
부처님의 꽃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이름이기도 한
목련입니다.

둘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디팜가라 부처님이
좋아하시고 불교의 상징인
연꽃입니다.

나도
연꽃처럼
목련처럼
부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재관 박경주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의 마음 속에는
미소뿐인 가보요
무엇을 물어봐도
미소로만 답하시네요.

항상 말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답을 찾아라는
듯이
항상 웃기만 하시네요.

그 미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깨달음의 길을
숙제삼아
열심히 찾아라고 하시네요.



보현방 한승민

꽃

우리들 주위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

그들 나무 밑에
앉아 주위를 보면
꽃들이 춤을 추네.

봄에는
꽃들이 많이 피지만
겨울에는
동무들이 자는 것처럼
꽃들도 많이 없어진다.

할미꽃을 생각하면
나의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

꽃들은 우리들의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주네

우리 주위에
항상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



보현방 신영주

선풍기

더위를 괴롭히라는 명령을 받고
방에 들어온 선풍기

미풍, 약풍, 강풍이라는
세가지의 힘을 가지고서는
더위에게 공격한다.

미풍, 찻찻한 몸을 건조시켜주고,
더위를 괴롭히고
약풍, 온 몸에 퍼진 뜨거운 땀을
차갑게 식혀주고,
더위를 힘 빼지게 하고
강풍, 더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
로 원, 투, 잡, 잡...
결국, 더위는 두 손 번쩍 들고,
항복~!



보현방 서희원

여름을 알리는 것들

여름이 오면 제일 먼저
곰팡이에서 성충이 된
매미가 맘~맘~ 하면서
여름을 알린다.

여름이 오면
학교 가기 싫다던
그 꼬맹이들이
방학식을 한다고
환호성을 외치며
여름을 알린다

여름이 오면
우리 동네 계곡에는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용기줄기 수박을 먹으며
여름을 알린다.

여름에도 모닝콜처럼
여름을 알리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문수방 김철영

매미

여름이 와서
매미가 맘 맘 맘

여름이 뜨거워
울음을 터뜨리네.

오래 사는 매미
부채질 하네.

날개는
부채로 쓰이네.



선재관 김한비

느티나무

바람과 만나 살랑살랑
흔들며 인사해주는
느티나무

그들을 만들어 엄마미소를 짓고선
이리온 이리온 하며
자기 품에 안기라고 손짓하는
느티나무

엄마 같은 느티나무 품에 안겨
송골송골 맺힌 땀을 날려버리곤
느티나무 그늘 밑에 서서
한번 또 한번 안아본다.

시원한 바람만을 가져다주는 느티나무에게서
엄마 품 같은 느낌을 발견했다.

느티나무 곁이라면
어마 그 어떤 품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따뜻함, 시원함, 포근함, 그 자체가
느티나무이니까 말이다.



안양원 이기소

지갑

나의 손에 쥐어진 지갑
지갑은 나의 자존심이다.

한껏 살이 오른 지갑
이 똥똥한 지갑은
나의 자존심에
살을 찌워준다.

너무 못 먹은 지갑
이 야윈 지갑은
나의 자존심을
비실비실 거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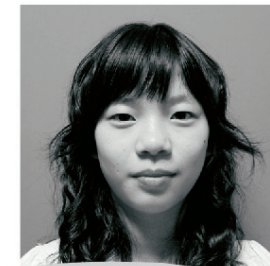
나의 손에 쥐어진 지갑
지갑은 나의 자존심이다.



미룩방 정다운

봉숭아

보리수 우리 화단 봉숭아가 피었네
여자들은 봉숭아 물들이려고 돌멩이
찾아
이리저리 봉숭아 찾아 이리저리
앗! 봉숭아다, 누가 누가 잘들이나
봉숭아 물 잘 들이나
봉숭아 꽃잎 살짝 건들이니
나 건들지 마세요 하면서 씨를 주네
씨를 모아 봉숭아 심어 보자
정성을 다하여 잘 가꾸자



선재관 신경이

해바라기

태양을 향해 고개를 내민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며
그저 태양을 바라본다.

마치 한 사람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도
바보같이 기다릴 뿐이다.

긴 기다림 속에 지쳐가더라도
한 곳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고 싶다.



선재관 오솔기

갈색 바다

갈색 빛 세상 속
그 특유의 생동감

흐릴듯한 듯 그러나
조용해지는

특별한 세상 속
그 속에 갇든 색

고난을 준비하는 그러나
희망을 기다리는



경상남도 모범청소년 선진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글 | 선재관 김정희 [고성고 1년]



첫째 날: 나는 경상남도 모범청소년 선진문화 탐방으로 대만에 갔다 오게 되었다. 대만에는 3박4일로 가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언니, 오빠들이 낯설어서 말도 못 붙이고 어색해하며 함께 가게 되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여권이랑 비행기 표를 받고 나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처음에 조별끼리 모여서 자기가 소속된 조를 확인하고, 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구경하다가 모여라는 시간까지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가기로 하였다. 나는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말도 통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면세점을 구경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갔다.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 아저씨를 만나고 같이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갔다. 일단 첫날은 피곤하니까 쉬기로 하고 다음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날 일정은 내일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둘째 날: 아침식사를 호텔에서 먹고 나서 북해 야류 공원을 탐방하러 갔다. 북해 야류 공원에는 큰 신발 모양으로 찍힌 발자국 모양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왕의 머리카락과 고릴라처럼 생긴 돌들도 볼 수 있어서 마냥 신기하고 좋았다. 북해 야류 공원을 탐방하고 나서 실내 온천욕을 하러 갔다. 온천욕은 할 사람만 하기로 하고 나는 예은이 언니랑 같이 온천욕을 하러 온천에 들어갔다. 대만 사람들은 수건이 물에 닿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물에 적시지 않게 조심하면서 온천욕을 즐겼다. 온천욕을 즐기고 나서 대만에 있는 계란푸딩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북해 야류 공원 탐방이랑 실내 온천욕을 다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고 고궁박물관이랑 충렬사에 견학을 가기로 했다. 고궁박물관에는 모두 옛날 것만 있어서 지루했는데 충렬사에 가보니까 신기했던 것이 있었다. 충렬사에는 교대식이 있다고 해서 교대식을 구경하였다. 군인들이 서로 발 맞춰서 교대식을 하는데 딱딱 맞는 게 신기하고 구경하기에 딱 좋았다. 옆에서 언니들이랑 같이 동작들을 따라도 해보고 군인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었다. 대만 군인들은 옆에 알파벳 V를 붙이거나 몸을 만지거나 하는 걸 싫어해서 만지면 안된다고 가이드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충렬사 견학까지 다 끝내고 나서 저녁을 먹고 용산사를 견학하러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탓에 용산사는 구경을 못하고 야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다. 야시장에는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나는 예은이 언니랑 같이 야시장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대만에서 유명하다는 진주나이차라는 것도 먹어보았다. 맛이 특이하고 조금 먹으면 먹을수록 느꼈다. 맛은 특이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나는 야시장까지 다 탐방하고 나서 호텔로 다시 와서 내일 일정을 위해 쉬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자강호 열차편으로 화련 이란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일단 화련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태노각 협곡(장춘사, 연자구, 구곡동)을 구경하기로 했다. 태노각 협곡에 가니까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 같이 푸른색으로 된 물이 고여 있어서 놀랐다. 물은 원래 투명색인데 에메랄드같이 푸른색이니까 신기해서 사진 찍고 계속 구경을 하였다. 태노각 협곡을 다 구경하고 나서 원주민 전시관을 견학하게 되었다. 원주민전시관에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물품이 있었다. 정말로 신기했다. 원주민전시관을 다 구경하고 나서 저녁밥을 먹고 다시 자강 호 열차편으로 대만으로 귀환하고 나서 또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호텔로 가서 쉬었다. 마지막 날이라서 다들 아쉬워하기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였다. 손가락을 접어서 다 접히면 벌칙을 받는 게임이랑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게임도 하였다. 두 게임을 했는데 그 두게임 다 벌칙 자는 나왔다. 손가락 접는 게임은 내가 맞고, 31게임은 흑기사로 다른 애가 맞아 주었다. 그 애한테 그날은 고마워했다.

넷째 날: 마지막 날도 역시 아침을 호텔에서 먹고 대만 민주기념관을 견학하였다. 집에 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돌아가고픈 마음에 무엇을 봤는지는 잘 기억에 나지 않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구경했다. 대만 민주기념관을 다 견학하고 나서 점심밥을 먹고 대만 도원 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비행기 표를 받고 여권도 들고 비행기 탈 준비를 하고나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가 조금 넘은



상태에서 부산 김해 국제공항으로 6시가 넘어서 도착을 하였다. 언니들과 동생들과 오빠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박4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좋았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선 후 나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마산역으로 왔다. 보리수동산 차가 마산역에 도착해서 차에 탔는데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왠지 낯설고 일주일 만에 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대만여행을 갔다 와서 많은 것들을 느낀 것 같았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고 우리 보리수 선생님들과 학교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상담을 해주신 권정순 선생님과 많은 사람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정표

날 짜	장 소	이동수단	시 간	내 용	식 사
제1일 12/09 (목)	부산 대만	GE705 전용버스	22:30 23:55	부산김해국제공항 출발 대만도원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미팅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석:기내식
제2일 12/10 (금)	대만	전용버스		조식 후 이동 북해 야류 해안공원 탐방, 실내 온천욕 중식 후 고궁박물관 및 총열사 견학 석식 후 용산사 견학, 야시장 탐방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한식 석:몽골리안 바베큐
제3일 12/11 (토)	대만 화련 대만	전용버스 기차 전용버스 기차 전용버스		조식 후 이동 자강호 열차편으로 화련 이동 화련도착 후 중식 태노각협곡(장춘사, 연자구, 구곡동) 원주민전시관 견학 석식후 자강호 열차편으로 대만귀환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원주민식 석:현지식
제4일 12/12 (일)	대만	전용버스 GE706	15:00 18:10	조식 후 이동 대만 민주기념관 견학 중식 후 공항이동 대만도원국제공항 출발 부산김해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샤브샤브

취업이란 관문을 거치며...

글이 기 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진학반이 아닌 취업반에 들었기 때문에 고3때 '미래테크'라는 회사에 실습을 나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선생님들의 보호 속에서만 살아 왔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생활과 시간은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왜 선생님과 제 주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대기업과 공무원을 추구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하고, 주간과 야간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을 하면서 조금씩 선생님들의 잔소리와 걱정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잔소리가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 닿았을 때 저는 벌써 후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습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는 학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잘못을 했을 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아가야 하는 '정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라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면서 받아보는 첫 월급이구나!'

'이 돈을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한 거구나'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번 돈을 쓸 때에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생하면서 번 돈을 아무 곳이나 쓰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습을 하는 동안 시간을 너무나도 빨리 지났습니다.

하루는 지겨울 정도로 느리게 갔지만 실습을 나간 5개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5개월 동안 회사에서 실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지 못 한 사회의 한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실습을 한 5개월을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취업을 했다는 것이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다른 친구들 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한발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보낸 시간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것 보다 더욱 많은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실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앞으로 취업을 할 동생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음식궁합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글 | 영양사 이숙진



라면과 녹색채소

라면은 지방과 소금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이에 채소를 곁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 보완도 되지만 소금의 나트륨 작용을 상쇄시키는 칼륨이 길항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라면과 녹색채소는 뿔 레야 뿔 수 없는 찰떡궁합인 셈이죠. 날 채소 특히 녹황색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지요. 라면은 국물까지 다 먹게 되면 최소한 5-6g 정도의 소금을 먹게 되므로, 유전적으로나 후천적으로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라면을 먹을 때 신경을 써서 먹어야 해요.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지방분이 많아 감칠맛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돼지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걸릴 위험이 크다. 표고버섯의 효능은 체내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므로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표고버섯에는 양질의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며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 표고버섯은 특별한 향미와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 돼지고기 고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면서 독특한 향과 맛을 더하고, 콜레스테롤의 위험도 막을 수 있으니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은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조개와 쑥갓

쑥갓은 향이 독특하고 맛이 산뜻해서 날로 먹어도 좋고, 나물로 해 먹어도 좋은데, 조개에 없는 비타민 A와 C, 엽록소가 풍부해 조개와 좋은 궁합이죠. 조개는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 간장 질환과 담석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으며, 위장이 약해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어요. 또 조개 속에 들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간질에 유효하며 고혈압과 뇌일혈 증세의 억제 효과, 간장의 해독 작용,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적혈구 형성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궁합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우유와 소금 · 설탕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우유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흔히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경우가 있죠. 맛이 진하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바르게 먹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답니다. 우유에는 알맞은 염분이 들어 있고,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요. 설탕을 넣으면 단맛 때문에 마시기는 좋을지 모르나 비타민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죠. 딸기, 바나나, 커피 우유 등 이른바 가공유는 우유에 설탕, 향료, 물 등을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맛은 좋지만 일반 우유보다 영양상 뒤진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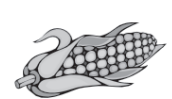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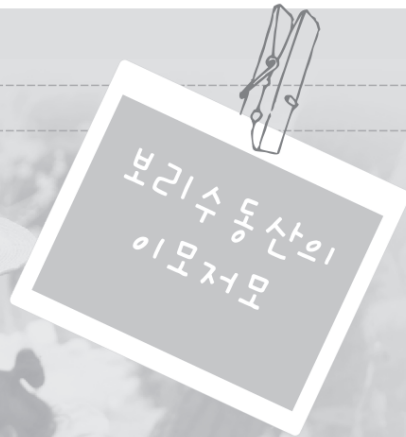
김과 소금

김은 홍조류에 속하는데 지방은 적은 편이지만, 칼슘, 칼륨, 철, 인 등이 많으며 섬유질이 특히 풍부해요. 또한 최근 김에는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어요. 어렵게 살던 시절 밥반찬으로 소금을 뿌려 먹었지만, 짜게 먹는 것이 성인병 특히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 학설을 통해 알려진지 오래죠. 김은 바다에서 나는 식품으로 이미 소금기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소금을 안치고 먹는 것이 제 맛을 음미 할 수 있고, 성인병 예방 효과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수 어린이들 소금뿌린 김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다음부터는 맛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조개와 옥수수

조개류는 부패균과 번식이 잘 되는 수산물이며, 산란기에는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개를 먹고 소화성이 떨어지는 옥수수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일이 많아요. 옥수수가 나오는 철이 여름이고, 식중독균의 번식도 왕성하니 식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개와 옥수수는 조직이 단단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식품입니다.





지난 겨울, 하얀 눈밭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신났던 원영이와 병준이^^



2011년 2월 16일, 민승이와 경은이, 병준이의 유치원 졸업식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청련암 맑은 산 기슭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녹차를 따고 있네요.



2010년 2월 28일, 정월대보름 날 우리 보리수풍물패 아이들이 지신밟기를 했어요.



2010년 2월 21일, 나눔의 향기 봉사자님들과 연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뜨거운 여름날, 다운이와 지우가 냇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와 싸움을 하고 있군요.



2010년 8월 22일, 산청 경호강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래프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010년 7월 20일~23일, 파라미타 여름캠프에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여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네요.



2010년 5월 30일,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보리수풍물패가 대상을 받았어요.



2010년 6월 12일, 작은사랑회 봉사자님들과 함께 떠난 통도환타지에서 민승이와 원영이가 회전목마를 타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2010년 7월 30일~31일, 미륵방 아동들이 개천 청광마을에 여름캠프를 떠나서 이장님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4~6일, 밀양호박소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하는 정재광 광일이, 동천이, 승민이, 영주입니다.



2010년 8월 9~11일, 2박 3일 간 우리 문수방 꼬맹이들과 예쁜 선생님들이 전남 보성 선소여촌에서 열심히 피막을 깨고 있군요~



2010년 8월 9~11일, 눈 부시게 푸르른 보성 녹차밭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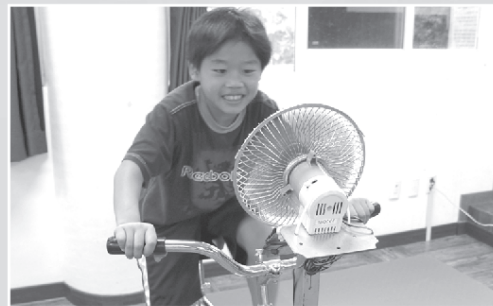
2010년 9월 11일, 와이즈만해누리에서 '찾아가는 수학, 과학 대전'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2010년 8월 9~12일, 안양원 고등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신나는 여름캠프를 보내며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고, 요리경연대회도 열어서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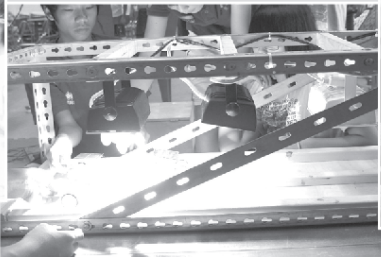
수학, 과학 대전에서 의렬이와 지우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군요~



열심히 신재생에너지 자전거발전기 선풍기를 타고 있는 동인이, "영차~영차~" 발을 저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더 큰 비눗 방울을 만들까요? 목을 제긴 채로 열심히 방울을 불고 있는 광석이~ 동천이!



수학, 과학대전에서 태양열발전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는 민규와 광일이.



뽕튀기를 만드는 기계를 돌리며 재밌어 하는 유영이~ 무척 신나보이죠~!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보길래 모두가 저렇게나 집중해서 볼까요? 살짝 궁금해지는데...



두산범우회와 보리수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욕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저녁으로 고기도 사주셨어요~



뜨거운 여름, 원동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민승이와 병준이는 귀엽게 사진도 찍었네요.



안양원 총각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경주 안압지에서 기념 사진 한 컷~!



고성탈박물관에서 전통장승만들기 수업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1년 2월 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하루가 있었어요. 우리 동천이랑 경이가 신이 나서 장난을 치고 있네요.



2010년 5월 5일, 두산 어린이축제 때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기를 구워 주시고 계시는 보리수회 봉사자님들~ 언제나 감사해요.



2010년 8월, 지장방의 성현이와 득수가 일봉사 원숭이 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선재관의 경이와 영미가 전북 임실 치즈마을에서 직접 우유를 이용하여 치즈를 만드는 체험을 하군요.



2011년 1월 겨울방학 동안 부산교대 학생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모자란 수학의 기초를 잡아주셨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부산교대 명예교수이신 최관경 교수님께서 강당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2010년 12월 18일 송년축제 때 지장방의 중학생들이 열심히 오렌지카라멜의 마법소녀를 춤추었습니다.

일반후원금명단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법인)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2010년 12월 24일 진주불교청년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2010년 12월 31일에 보리수 선생님들과 아동들이 한뼘 두뼘 모은 성금을 인근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인석이 생일을 맞아 화승이가 멋있게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군요. 우와~ 우리 화승이 너무 멋진 거 아냐~



열심히 다도선생님께 예절을 배우고 있는 우리 민승이와 유영이, 주영아~



매년 열리는 소가아문화제에 우리 보리수동물패는 개천면 대표로 열심히 읍면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솜씨를 뽐내었습니다.



설, 추석 때마다 우리 보리수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조상님들과 부처님께 차례를 지냅니다.



동아리 프로그램인 밴드수업시간에 신나게 드럼을 치고 있는 경주^^

2010년 1월 이상태 조정남 고난조 안규철 조재영 최상률 이태현 이응호 이두래 강옥환 이춘달 이재동 김현주 조재경 신동순 이윤봉 김옥진 정미순 심영란 김말순 윤상일 강필환 (주)동명특수강 한복남9 홍세표 윤진란 김진환 김진영 이숙이 서도순 서기석 명정식 장형선 양수미 이상근 김순희 김수동 정숙향 하부영 강정덕 김옥순 황순자 이우중 이미영 김복선 호전종합건설 조점이 김민호 보리암 명곡목재 허귀임 정성종 황종관 성양원 박재홍 거성실업 박요선 최연경 정순자 박진아 김희정 최은지 남정우 김재룡 심영아 방이호 문갑례 치마저고리 김도일 문상필 박종식 사랑자비 한은주 김연순 허광도 진순옥 정재근 김선숙 임막순 이한준 김석연 변인섭 정지숙 김명순 이순복 황희석 김정숙 백상호 홍정숙 조현점 정중숙 박태남 김용진 변재범 김문기 하윤숙 진영숙 이경순 백승자 최상숙 문은자 최연익 김철영 박종근 강도식 최숙자 손윤희 박정숙 이성환 장영수 최홍래 전부근 강쌍범 김명완 이영숙 주신옥 김보열 황진선 제낙을 전역수 김민강 주동강 윤이리 허성란 양미모 김성호 윤복연 박치훈 김인호 김설영 비케이건설(주) 이원호 문경련 박은정 박철홍 배경조 김옥화 이미애 홍순화 이상백 이태호 배상림 김승용 공인배 이계숙 최인미 김현석 김유식 이영미 최은경 최상태 구정숙 이수연 한학조 정영숙 김택상 김대수 이성인 임화자 서양순 이영숙 임화연 정정자 정정순 김현섭 연화주유소 정성청 강상미 황정숙 김태형 노주현 박국원 이향래 신창환 윤원준 이용성 이현순 김향숙 최성락 제성호 문미경 성우근 원혜정 한판현 전경도 김만식 김종복 이희연 김오수 정귀남 윤석근 강순자 이계순 원찬섭 전득곤 이상근 하정자 박철용 김보열 김무림 김정계 윤정자 최중용 임영애 유석열 김정옥 강정웅 장인옥 김정옥 김소연 대각이엔씨 객진중 권현옥 김정인 정성웅 김중선(제이에스무역) 민영인 이현숙 김정재 김재호 김수현 홍우영 허종개 윤순옥 양채심 박진희 양유경 김순점 정정숙 임영연 이창식 정인숙 이상훈 제금자 이지현 삼영토건(주) 박보영 강옥중 이문희 무주사 김금자 이미경 정영호 남태석 허혜자 이창훈 이만구 강효상 정숙자 강도식 정창민 박종문 양승원 한선희

2010년 2월 권종영 정귀남 장영수 윤상일 김순화 팽정옥 한두련 이호길 김진환 강갑순 심영아 정지숙 원혜정 최근철 김순권 이태호 이태현 박정숙 손혜숙 박국원 이현숙 김용진 대한미용사회합포지부 이수미2 엄영근 이윤봉 남정우 백정호 정정자 김석순 허혜자 김광호 정숙향 김명완 홍세표 조혜자 온도석 김보열 이영자 박귀은 구정숙 동명특수강 남경남 양수미 조현정 강대균 장인옥 이용호 서도순 김중선 왕한석 최은경 이우중 성양원 강옥환 김정숙 김옥진 사랑자비 박종태 명정식 윤이리 정성종 백승자 김주애 한학조 윤진란 김보열 경남은행 조재영 박종태 김희정 박철홍 객선자 이지현 최인미 김석연 이성범 조재경 이창식 문갑필 김성호 박정숙 청호건설 정영숙 김정재 하상필, 하창식 김옥순 정병하 임막순 김명순 구미자 서양순 정동태 김현주 이희연 명곡목재 박순자 김병호 김민강 김용호 박진희 양유경 강필환 하정자 정순자 양승원 백상호 변재범 최영희 최상태 이미영 안규철 박병수 경남무선네트 서영문 진영숙 김복선 성명숙 남태석 이상근 최연경 불심회 치마저고리 최효심 최영숙 이순복 홍은정 장시경 김연순 문갑례 석태훈 정재근 장홍점 이영숙 진순옥 배종화 문미경 황종관 이두래 김태형 김문기 권현옥 이한준 김철영 박동준 김유식 최은지 강순자 배정자 왕희석 하상개 오유민 윤정자 박연운 남정임 조점이 김소연 이미경 박종근 김민진 주신옥 강정덕 심영란 황정숙 박종식 이연식 한선희 강쌍범 김지호 박은정 보리암 김진영 문경련 방이호 김순희 정창민 주동강 강진환 김민호 전부근 강현성 배상림 김택상 최성근 김중선 비케이건설(주) 정숙자 김현섭 김무림 최재섭 민영인 하부영 정미순 이상훈 이상백 심명숙 허광도 김옥화 박향진 거성실업 고난조 박보영 박종문 이영미 심성보 이재동 정정순 이상태 조정남 김현석 이창훈 제금자 김오수 조성원, 조희나 신창환 성우근 박재홍 이상근 이미애 장연주 이성인 조성진 한판현 문은자 김재룡 이숙이 최연익 윤복연 임영연 정성청 조성진 김향숙 김만식 차기훈 박치훈 최홍래 이계숙 강효상 이용성 조원익 김정옥 정동희 조민주 김말순 이경순 정중숙 공인배 원찬섭 조원익 윤석근 정화원 호전종합건설 김정인 박요선 김복실 이수연 김수현 조필준 박태남 공남이 한은주 제낙을 손윤희 배경조 임화연 이문희 조필준 이춘달 강도식 김수동 전역수 김인호 최상숙 노주현 객진중 심영숙 조점이 이향래 변인섭 홍정숙 양미모 허성순 안중연 제성호 이성환

2010년 3월 홍은정 남정임 김옥화 이미애 변재범 김순화 이용진 이수연 (유)한국산업 김용호 변인섭 문은자 최연익 진순옥 양채심 팽정옥 노주현 이태호 최영희 이계순 김무림 하부영 김철영 구정숙 박진아 안중연 강상미 강대균 최상숙 정정순 이한준 이계순 하윤숙 허귀임 김수현 김정숙 김설영 윤복연 정지숙 김현섭 남정원 김태형 황순자 제성호 정인숙 강옥환 이계숙 이용호 이재동 전부근 김현석 장형선 장형선 한두련 객선자 정중숙 장영수 허광도 이성환 박성만2 조재영 박진아 배학렬 성명숙 장시경 이충림 신창환 이연식 이병조 조재경 허귀임 하인용 구미자 정정자 청호건설(주) 윤상일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법인)

홍순화 최성락 이수미4 황순자 김승선 백장흥 심영아 윤진란 원혜정 정의순 이희연 왕한석 김도일 김선숙 강갑순 정귀남 김종복 박귀은 김설영 하정자 김도일 이용진 최운경 김대수 박국원 김수정 서도순 김대수 신길선 왕한석 팽정옥 남경남 온도석 김보열 김옥진 김보열 윤원준 김순화 명정식 김순권 김영완 김주애 장인옥 김연순 김석연 한판현 이미경 동명특수강 김오수 박주홍 최재섭 한학조 양유경 김정재 윤정자 정창민 김순권 이성인 김금자 손혜숙 박진희 정영숙 사랑자비 정정숙 한선희 김옥순 전경도 양승원 권종영 남태석 최인미 김현주 김재호 이상흠 명곡목재 이용성 이용주 박정숙 황인영 이상근 강필환 객선자 박종문 정순자 원찬섭 이도규 홍순화 문미경 이미영 안규철 최영희 제금자 서상희 객진중 정숙자 심영란 서양순 황종관 이영자 권종영 하윤숙 치마저고리 이문희 강옥중 박연운 최상태 최은지 최연경 성명숙 김중선 정재근 임영연 이홍열 박동준 황정숙 서진호 문갑례 강대균 양채심 이무제 강효상 이원형 배종화 배상림 민영인 이두래 김용호 최숙자 황희석 공인배 강도식 윤원준 문경련 김용진 김성호 홍은정 이호길 김문기 임화연 김영완 대각이앤씨 이상근 김명순 백승자 구미자 김민강 박종근 윤석근 (유)한국산업 이영자 김말순 박종식 장연주 온도석 이태현 강쌍범 제낙울 김재현 박향진 김향숙 이경순 박정숙 김주애 이윤봉 주동강 박태남 심성보 심영숙 김순점 조정남 고난조 박보영 손혜숙 홍세표 이영미 김정옥 정인숙 연화주유소 이춘달 양미모 최성근 백장흠 양수미 이상백 박치훈 한두련 정정숙 김정인 최홍래 남정우 강갑순 이우종 오유민 류석열 이창식 김재호 이숙이 전역수 김순희 박연운 정성종 박은정 성우근 김소연 강현성 김복실 홍정숙 이창훈 김정계 문상필 손윤기 이향래 조혜자 이상태 조점미 박요선 정미순 최재섭 임박순 주신옥 연화주유소 성양원 한은주 정숙향 김인호 김진환 박정숙 김병호 김민호 이지현 박철홍 김수동 거성실업 김경순 김복선 박향진 백상호 방이호 배종화 강정덕 김재룡 조민주 대각씨앤디 최숙자 차기훈 진영숙 김택상 박동준 보리암 박재홍 호전종합건설 김순점 이영숙 이순복 강순자

2010년 4월 강옥환 이충림 고난조 이두래 구미자 구정숙 (주)동명특수강 이태호 안웅호 심영란 이숙이 이경순 장연주 손혜숙 윤순옥 명정식 연화주유소 이태현 김진영 류석열 김경순 정미순 최영희 김태형 조재영 김승선 이윤봉 강현성 김정인 손윤기 김복선 김용호 정상용 조재경 최운경 홍세표 차기훈 김복실 윤상일 백승자 박정숙 박영숙 김옥순 김정숙 양수미 조민주 정숙향 이재동 이창훈 김민강 이희연 명곡목재 하상개 이우종 호전종합건설 조점미 서도순 이순복 배종화 하정자 정순자 권현옥 정성종 한은주 거성실업 박귀은 박정숙 박동준 최성락 송현도 이창식 김희원 김재룡 김정옥 김명순 최성근 박연운 하윤숙 황희석 조성원.조희나2 문상필 이상태 제낙울 박요선 진순옥 대각씨앤디 이마트단체지원금 치마저고리 정숙자 임박순 김수동 박태남 방이호 변재범 권종영 이상흠 정재근 김재현 최숙자 남정임 박치훈 최연의 김진환 최재섭 이미경 이무제 정인숙 이영숙 변인섭 윤석근 오유민 김소연 김순점 정창민 김문기 조성국 안웅호 최상태 김석순 김민호 박보영 박향진 한선희 박종근 한복남4 박우찬 장시경 김연순 이현숙 조혜자 팽정옥 박종문 강쌍범 성동철 강성진 정정숙 허혜자 허광도 성양원 김순권 제금자 주동강 정병하 정유섭 윤복연 김수정 청호건설 박철홍 이수미2 박종선 이상백 한두련 서진호 이계숙 최은지 최홍래 김철영 한판현 정진점 이영미 김선숙 양유경 최상숙 김옥화 김택상 김성호 제대모 전현자 이성인 강옥중 김옥진 한학조 장영수 김인호 보리암 김재호 양채심 전경도 문경련 박종식 서양순 최인미 김현식 김유식 강대균 김순화 이용성 장인옥 윤진란 박진희 정지숙 이미애 전부근 객선자 강필환 김오수 황정숙 이상근 문미경 문은자 김현섭 이연식 홍은정 안규철 원찬섭 남태석 이미영 박국원 정영숙 신창환 홍순화 백장흠 이영자 김수현 김향숙 하부영 정정자 성우근 원혜정 김설영 강갑순 강정덕 이문희 민영인 양미모 배상림 정정순 김용진 이계순 김주애 최연경 노주현 박재홍 홍정숙 심규나 이용호 전역수 김대수 성명숙 문갑례 임영연 조정남 박은정 김보열 황종관 사랑자비 정의순 온도석 최미영 이수연 이상근 이한준 정귀남 김무림 김보열 윤원준 박진아 강순자 강효상 김말순 주신옥 객진중 이향래 김정재 김백곤 허귀임 이성환 공인배 이춘달 안중연 이용진 김현주 김석연 정정숙 김도일 김순희 임화연 장형선 제성호 황순자 남정우

2010년 5월 강옥환 강현성 서진호 허광도 강순자 구정숙 조재영 서영문 김병호 심영란 김향숙 박종식 강필환 객선자 박옥림 조재경 김경선 백상호 김진영 이우량 양유경 김성호 성명숙 최을림 동명특수강 강도식 이호길 최상태 민영인 이경순 원혜정 김주애 최덕순 명정식 최운경 이태현 이상태 김복실 고난조 김정계 온도석 정진점 심재섭 공남이 이윤봉 불여사 거성실업 이한준 허혜자 권종영 정규재 김옥순 이창식 홍세표 윤정자 제낙울 손윤기 윤정수 구미자 강대웅 명곡목재 김영완 양수미 이영자 박태남 홍정숙 문갑례 김용호 하정자 정순자 김금자 이우종 김재룡 김정인 김경순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법인)

최연경 강대균 이희연 최을림 김승선 정성종 한은주 정지숙 주신옥 이연식 강갑순 김태형 치마저고리 강정옥 문상필 김수동 김수정 하부영 박보영 최영희 김학길 정재근 남경남 임박순 차기훈 류석열 양미모 최성근 홍은정 지승우 신한생명 강상미 백상호 조민주 문은자 윤상일 김소연 백장흥 황순자 이무제 양승원 안미경 박재홍 이충림 이재동 김순점 박연운 이상흠 황희석 조원익 이영숙 호전종합건설 김정옥 김용진 최인선 배종화 이미경 김문기 조성진2 노영도 황기석 이춘달 장영수 박정숙 박동준 한선희 강쌍범 조필준2 안웅호 정정숙 이상근 박은정 정미순 대각씨앤디 정창민 박종근 한두련 박우찬 변인섭 성우근 윤정향 이창훈 최현자 박종문 주동강 조성원.조희나 강성진 윤복연 정정순 박귀은 김순희 한판현 제금자 김오수 권현옥 정유섭 최상숙 이향래 서도순 장연주 이성환 김중선 이영미 허영형.정화원 구나윤 심규나 조정남 김명순 남정우 김재호 양채심 이상백 박진아 장순이 박국원 이용호 김민호 김복선 박정숙 김순화 김수현 박종태 허미라 정귀남 박치훈 김정재 성양원 박향진 대한지적공사 이성인 송외순 권옥순 김보열 김말순 김택상 백승자 최재섭 한은주 전경도 하상개 박경자 정정자 김옥화 방이호 김진환 이용진 최영재 이용성 정숙자 정용훈 이계숙 윤석근 윤정애 박철홍 팽정옥 이계순 이문희 김재현 이지선 장인옥 이숙이 김현식 보리암 김순권 조혜자 원찬섭 김경선 구영숙 한학조 김무림 최연의 변재범 이수미2 김대수 이수연 강도식 강대웅 안정자 조점미 이미애 이순복 왕한석 정의순 강효상 김승선 이경희 허성란 정숙향 최홍래 진순옥 김도일 연화주유소 공인배 정인숙 윤정숙 남태석 청호건설(주) 김인호 김철영 김현주 윤원준 임화연 이태호 허귀임 장시경 김정자 장원주 강정덕 김현섭 이영자 노주현 박요선 남정원 문미경 이현숙 이두래 전부근 안규철 정정숙 안중연 오유민 이상근 남정원 김옥진 전역수 김설영 신창환 박진희 객진중 최인미 김석연 서양순 윤진란 사랑자비 홍순화 황종관 배상림 제성호 김기태 정영숙 황정숙 김연순 김보열 이미영 최은지 문경련 장형선

2010년 6월 강옥환 배상림 이한준 김현주 손혜숙 구정숙 명정식 김만식 김희정 심영란 김향숙 주신옥 문갑례 구미자 이일수(파티마병원) 조재영 배진성 최영숙 김진영 이영자 방이호 이두래 성명숙 최성락 조재경 최운경 최숙자 최상태 이상근 최연의 김성호 김주애 하정자 동명특수강 김영완 이호길 김석순 이춘달 황종관 이영수 박정숙 이희연 김옥순 박주홍 조지연 김민강 조정남 하부영 김복선 백장흠 이상흠 정순자 이창식 김민자 윤정자 이숙이 양미모 백승자 강갑순 이미경 명곡목재 양승원 김순찬 강현성 류석열 김민호 박정숙 홍은정 한선희 치마저고리 김선숙 이상근 이상태 김정인 박은정 장연주 온도석 정창민 이무제 서영문 이태현 남정임 이충림 장원주 남정우 박연운 김중선 김문기 정숙자 이윤봉 김수동 정숙향 이경순 최성근 배종화 하윤숙 황희석 남경남 홍세표 김재룡 조점미 김경순 김소연 박동준 박종문 박종근 이원형 양수미 한은주 거성실업 오유민 이창훈 대각씨앤디 제금자 강쌍범 정병화 이우종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최은지 이연식 김순점 양채심 주동강 안호순 정성종 윤복연 윤석근 박요선 김진환 박향진 김순화 이상백 조원익 김희정 박재홍 박태남 이재동 박보영 최재섭 황채석(삼정자초교) 이영미 조필준2 문상필 차기훈 김정옥 허광도 성양원 왕한석 강태화 이성인 양정화 임박순 조민주 박치훈 서진호 김순희 박진아 변재범 전경도 조성진2 백상호 황기석 제낙울 윤상일 정미순 황순자 김대수 이용성 한두련 최숙자 최상숙 정정순 손학모 박철홍 제성호 김철영 원찬섭 김경선 이영숙 변인섭 이향래 윤정향 강정덕 김도일 윤원준 김오수 정동희 이호길 정정숙 정지숙 서도순 보리암 이용진 연화주유소 이문희 김금자 노영도 장시경 김무림 최홍래 김민강 팽정옥 전부근 강효상 정인숙 안웅호 이계숙 김옥화 고난조 김명순 김순권 정정숙 공인배 김재현 박우찬 민영인 문은자 박종식 이성환 이수미2 김재호 임화연 권현옥 강성진 정귀남 장영수 박귀은 진순옥 김용진 객선자 노주현 허영형 정유섭 박국원 김수정 윤정수 이순복 김석연 강대균 안중연(한마음치과) 정화원 구나윤 김보열 성우근 전역수 정의순 김보열 최영희 객진중 손윤기 장순이 정정자 청호건설 김인호 김설영 최연경 권종영 김수현 홍정숙 권옥순 심규나 이현숙 이미애 홍순화 사랑자비 문미경 장형선 윤정애 박경자 장인옥 김옥진 김현식 이미영 김정재 박진희 허귀임 정영숙 정용훈 한학조 윤진란 김택상 최상숙 강필환 서양순 김현섭 최인미 이지선 허성란 이용호 신창환 양유경 안규철 황정숙 원혜정 남태석 구영숙 손혜숙 김연순 문경련

2010년 7월 강옥환 이충림 손윤기 최연경 객선자 동명특수강 조성원.조희나 강대웅 연화주유소 김진영 류석열 하부영 문갑례 강갑순 명정식 이태호 윤정숙 정의순 심영란 이숙이 이한준 강순자 강대균 조재영 김영애 김민자 윤원준 최상태 김정인 주신옥 변재범 권종영 김옥순 강도식 김순찬 윤정자 이계순 이춘달 이경순 김진환 구미자 명곡목재 김정숙 김희정 정정숙 한판현 이상근 양미모 박보영 성명숙 정순자 최운경 항행자 김대수 강현성 조정남 고난조 김소연 최영희 김문기 (주)한국산업 윤지희 한판현 강순자 김말순 박은정 이연식 온도석 황희석 김영완 윤숙열 김재호 윤정자 정숙향 이재동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법인)

정미순 김용호 치마저고리 최효실 이병선 홍은정 김수동 조점이 윤상일 성양원 김주애 이무제 김승선 강연옥 손혜숙 호전종합건설 청호건설 서도순 김순희 박정숙 강쌍범 이창식 이태현 백장흠 차기훈 거성실업 윤정향 남정우 박연운 박종근 김선숙 이윤봉 김명순 조민주 박태남 박귀은 이영수 대각씨앤디 주동강 황현숙 홍세표 김현석 박재홍 제낙울 김용호 장연주 최재섭 이상백 송외순 양수미 사랑자비 이상태 윤석근 김민호 김복선 박향진 김수현 공남이 이우중 김보열 한은주 김정옥 오유민 이창훈 구정숙 이성인 남경남 정성종 김석연 김재룡 박치훈 박묘선 백승자 김태형 전경도 강옥중 김희정 김정재 황기석 심규나 장원주 이순복 하정자 이용성 김경선 문상필 강필환 변인섭 김연순 방이호 진순옥 이상흠 객진종 정인숙 임막순 안규철 최인선 이현숙 최연익 최인선 이희연 원찬섭 김재현 백상호 김현주 정중숙 문은자 허광도 최성근 이마트단체지원금 이영미 권현옥 안미경 김석순 윤복연 최은지 민영인 박정숙 김중선 이문희 양정화 최영숙 강정덕 장시경 장영수 최홍래 박철홍 이미경 임영연 박경식 이영숙 정지숙 이계숙 김수정 윤정수 김성호 하선희 이수연 이민자 노영도 황종관 최상숙 성우근 김택상 김철영 정창민 임화연 허귀임 안웅호 서진호 한학조 이향래 전역수 보리암 박종문 강효상 박진아 박우찬 양유경 황정숙 김무립 김인호 이성환 제금자 공인배 김도일 강성진 윤진란 이영자 김옥화 이미애 전부근 하윤숙 노주현 이용진 구나윤 김옥진 문미경 최인미 신창환 이두래 강대형 안중언(한마음치과) 팽정옥 장순이 박종식 정귀남 이용호 김현섭 김설영 봉림사관음회 제성호 김순권 허미라 이상근 박국원 정정순 원혜정 홍순화 양채심 장형선 이수미2 권옥순 이미영 정정자 정영숙 김용진 이상규 김순찬 황순자 왕한석 박경자 김경순 문경련 서양순 김향숙 윤정숙 김희정 김오수 장인옥 정용훈 홍정숙 김보열 배상림 박진희 김민자 강대웅 구영숙 남태석 이지선

2010년 8월 김민강 김정계 허해자 객병섭 성명숙 조재영 하상개 김병호 구영숙 강옥환 박진희 양미모 장연주 객선자 조재경 이태호 최숙자 강대웅 박동준 조정남 하부영 이창훈 김대수 동명특수강 김승선 이호길 이경희 김진영 이상근 이경순 성양원 구미자 명정식 한두련 박정현 윤정숙 심영란 이춘달 고난조 김진환 박정숙 김옥순 강도식 정유섭 김영진 배종화 윤석근 박은정 정미순 윤원준 명곡목재 조성원.조희나 이경희 김민자 최상태 류석열 김경순 최인선 박연운 정순자 최윤경 최원옥 김순찬 이계순 박치훈 홍정숙 박정숙 정정숙 김문기 김영완 이해경 박경식 김순점 김말순 이한준 최성근 연화주유소 치마저고리 남경남 이승진 이민자 이상태 박태남 주신옥 이연식 김재호 이무제 이창식 김의민 이승진 박재홍 김정옥 손윤기 김소연 박향진 황희석 김선숙 항행자 황진두 김수동 이숙이 이재동 박보영 강대균 강쌍범 박종태 윤지희 김애숙 한은주 제낙울 윤상일 이영수 박동준 박종근 강옥중 윤숙열 이봉자 김재룡 김정인 김용진 김복선 배종화 주동강 김만식 이병선 김주희 호전종합건설 정숙향 윤정향 남정우 대각씨앤디 김수현 김재현 강연옥 윤라미 차기훈 조점이 박귀은 김민강 김순점 이상백 정인숙 김의민 신창환 조민주 거성실업 김명순 박철홍 이충림 이영미 권현옥 이태현 강필환 황기석 이영자 김민호 강정덕 구정숙 이성인 이강주 이윤봉 안규철 변인섭 정정순 장원주 원혜정 김혜숙 전경도 윤정달 홍세표 허광도 정중숙 김옥화 박묘선 보리암 김태형 이용성 홍은정 양수미 문갑례 최상숙 문은자 김석연 강순자 이희연 이문희 정익순 정성종 윤정수 윤복연 이용호 사랑자비 김순희 하정자 원찬섭 최재섭 김희정 서도순 이계숙 정지숙 전역수 변재범 이상흠 이수연 손혜숙 문상필 이두래 이영자 이향래 김정재 진순옥 이미경 임화연 김용호 임막순 김성호 장시경 김무립 김보열 이순복 한선희 강효상 강갑순 백상호 정영숙 심규나 성우근 김인호 김철영 정창민 공인배 백장흠 이영숙 최인미 정귀남 김수정 방이호 허성란 김중선 노주현 최영희 박정현 양유경 박국원 장영수 김현석 홍순화 박종문 안중언 김주애 노영도 이미영 김보열 이현숙 이미애 한판현 제금자 제성호 허성란 안웅호 이상근 정정자 강현성 오유민 김유식 양채심 장형성 서양순 박우찬 황종관 장인옥 민영인 최홍래 전부근 하윤숙 황순자 문미경 강성진 최은지 한학조 김옥진 최연익 김설영 김태형 김오수 문경련 정유섭 서진호 황정숙 윤진란 최연경 권종영 최원옥 박진아 배상림 구나윤 박종식 남태석 김연순 김현주 온도석 이지선 이용진 김향숙 장순이 이수미2 김도일 허귀임 정용훈 박경자 권순옥 팽정옥 청호건설 허미라 김순권

2010년 9월 강옥환 김정인 이재동 이영수 홍은정 동명특수강 노주현 이우중 박경자 최상태 이춘달 김용진 김복선 박동준 명정식 왕한석 김병호 정용훈 심영란 조정남 윤정자 남정우 배종화 조재영 한두련 최영숙 최원옥 김진영 이상근 민영인 김설영 대각씨앤디 조재경 남경남 최숙자 이지선 이계순 정숙향 강현성 진순옥 윤정자 김옥순 최효실 이호길 구영숙 윤정자 조점이 김명순 이창훈 김민강 명곡목재 한복남 이재정 김용호 최상숙 청호건설 이상근 최인선 최재섭 정순자 한복남 박현숙 구미자 호전종합건설 구정순 박종식 박정숙 박정숙 김문기 조성원.조희나 항행자 김주애 차기훈 거성실업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법인)

서도순 최선근 박향진 치마저고리 장홍점 윤지희 온도석 조민주 제낙울 이미영 성양원 김순점 황희석 안호순 윤숙열 강대균 박재홍 박치훈 윤정향 변재범 구정숙 이무제 김승선 이병선 손혜숙 한은주 김정옥 하부영 이연식 대한미용사회 박종근 김정숙 강연옥 권종영 김재룡 박태남 박귀은 박보영 최규현 강쌍범 김경선 김의민 문갑례 이상태 윤석근 허해자 김소연 김영희 주동강 조필준 이재정 윤정수 김수동 정지숙 최연익 김진환 최상중 전경도 조성진 박현숙 장원주 황기석 김수정 이두래 홍순화 정막이 이상백 조필준 이태현 최연경 변인섭 김무립 이미애 김순희 김혜숙 이용성 조성진 이윤봉 김현석 정중숙 장영수 오유민 윤상일 연화교직원복지회 김오수 조원익 홍세표 이순복 장시경 정정순 최홍래 김인수 배정자 이성인 조원익 양수미 장연주 윤복연 김옥화 김민호 박철홍 하정자 이영미 최운경 이우중 이한준 황정숙 문은자 김석연 김철영 이희연 김수현 김금자 정성종 최인미 이계숙 이용호 박묘선 강정덕 하윤숙 이문희 김영완 김희정 황종관 김보열 성우근 김보열 전부근 김중선 원찬섭 정동희 문상필 양미모 심규나 김옥진 사랑자비 김대수 이상흠 강효상 장순이 임막순 고난조 정정자 윤진란 전역수 연화주유소 이미경 황순자 강도식 백상호 박은정 정귀남 이향래 김인호 정익순 한선희 공인배 임옥자 안미경 서진호 박국원 이영자 김정재 윤원준 정창민 임화연 이창식 최영숙 이영자 장인옥 이현숙 방이호 한판현 박종문 장형선 양승원 최숙자 이숙이 한학조 김연순 허광도 정정숙 제금자 제성호 권현옥 이영숙 김말순 박진희 강순자 김성호 정미순 양채심 안중언 정병하 박정현 이충림 남태석 손윤기 안규철 김재호 부산생활선원 객진종 박종태 노영도 정화원 서양순 최은지 김현주 최영희 하창식.하상필 이수연 서영문 안웅호 허영형 김향숙 정영숙 신창환 객선자 한원희 허귀임 이원형 박우찬 이태호 백상림 이경순 강필환 강갑순 대한지적공사 박진아 김선숙 강성진 김재현 문경련 김경순 원혜정 성명숙 김순권 김도일 하상개 정유섭 안호순 문미경 주신옥 김석순 백장흠 이수미2 이용진 허미라 구나윤 양승원 팽정옥 권옥순

2010년 10월 강옥환 김향숙 이경순 박정숙 구정숙 동명특수강 김승선 강대웅 박우찬 심영란 최미영 김경순 최성근 김태형 명정식 김금자 이경희 강성진 김진영 김말순 손윤기 장연주 김혜숙 조재영 정숙자 윤정숙 정유섭 최상태 조정남 홍정숙 김소연 이희연 조재경 정인숙 김민자 구나윤 보리암 이춘달 이한준 이창훈 하정자 김옥순 박우진 김순찬 장순이 이계순 이상근 주신옥 이연식 이상흠 명곡목재 조성원.조희나 박경식 허미라 이상태 이숙이 양미모 김정재 이미경 정순자 강도식 이민자 권순옥 호전종합건설 이충림 고난조 박보영 정창민 김문기 최운경 이해경 박경자 김수동 정숙향 이재동 박철홍 한선희 치마저고리 (유)한국산업 이승진 정용훈 차기훈 조점이 윤상일 강필환 이마트단체지원금 이무제 김영완 황진두 최원옥 조민주 청호건설(주) 김명순 김성호 박종문 황희석 남경남 김애숙 이지선 박재홍 거성실업 윤정향 김현주 제금자 강쌍범 이창식 이봉자 구영숙 한은주 김연순 박귀은 김인수 김중선 박종근 권현옥 김주희 강대웅 김재룡 김수정 하부영 안규철 양채심 주동강 공남이 윤라미 윤정숙 박진희 성우근 오유민 강정덕 하윤숙(우체국) 이상백 강옥중 김해원 김민자 황기석 이향래 김민호 보리암 성양원 이영미 정숙자 이호길 김순찬 이성환 김무립 박묘선 최연경 김진환 이성인 장영수 조지연 김희정 변인섭 최인미 방이호 문갑례 이두래 전경도 이상근 항행자 박경식 정중숙 김정옥 허광도 강순자 김순희 이용성 윤진란 윤지희 이민자 윤복연 박치훈 장원주 진순옥 남정우 원찬섭 이미영 윤숙열 이해경 최상숙 정정순 윤정수 이순복 김복선 객진종 이용호 이병선 이승진 장시경 윤석근 최홍래 변재범 정미순 김수현 허해자 강연옥 황진두 이계숙 정영숙 전역수 김철영 이영수 임영연 최은지 김의민 김계동 한학조 제낙울 이미애 김설영 사랑자비 이문희 서진호 이재정 김애숙 허성란 정지숙 김인호 홍순화 최인선 강효상 김태환 박현숙 이봉자 서양순 문은자 최연익 한판현 김보열 공인배 박종식 이태현 김주희 정귀남 김옥화 신창환 정익순 김석연 임화연 양유경 이윤봉 윤라미 김보열 박태남 원혜정 김대수 문미경 노주현 박은정 홍세표 김해원 박국원 황종관 김용진 윤원준 남태석 안중언 이영숙 양수미 허귀임 심규나 이현숙 서도순 정정숙 배상림 김오수 박정현 이우중 김도일 정정자 김석순 김현석 전부근 문경련 제성호 노영도 정성종 임막순 장인옥 이영자 윤정자 김원진 황정숙 황순자 안웅호 김희정 문상필 민영인 홍정숙 김재호 대각씨앤디 최숙자 장형선 백상호

2010년 11월 온도석 최상숙 윤진란 박귀은 윤원준 구정숙 이용진 김재현 김병호 강대균 장시경 김연순 방이호 한판현 김태형 팽정옥 정인숙 안미경 강옥환 김보열 최인미 김석연 정정숙 김혜숙 이수미 박우진 이호길 성명숙 박국원 황종관 김정재 백장흠 이희연 이수미 김정숙 정진점 객선자 정정자 정영숙 김보열 객선자 하정자 동명특수강 (유)한국산업 이경희 강갑순 심규나 이현숙 사랑자비 온도석 이상흠 왕한석 강영란 김경현 손혜숙 정귀남 장영수 안규철 성명숙 이미경 명정식





■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법인) ■

최운경 최경녀 백장흠 장인옥 이미영 강필환 강대균 한선희 김순권 김승선 이호석 김용호 한학조 이상근 김현주 손혜숙
정창민 정차호 이창식 한행자 최영희 서양순 최은지 양유경 권종영 김중선 조재경 김영완 윤숙열 권종영 김정계 서진호
홍정숙 강갑순 박종문 김옥순 김선숙 이병선 박정숙 허성란 박종식 최연경 김용호 제금자 명곡목재 서영문 강연옥 홍은정
남태석 허혜자 문갑례 홍은정 양채심 김무기 박종태 김익민 구미자 문미경 김명순 이두래 구미자 김도일 정순자 강옥중
이재정 김주애 황정숙 양미모 김성호 김주애 장형선 치마저고리 하상개 김경현 김진영 이영자 이미애 정미순 박정숙
이용진 이무제 박경자 박현숙 박동준 문경련 하부영 장연주 김민강 팽정옥 황희석 정용훈 최경녀 배종화 배상림 김현석
김순희 박동준 김순권 박종근 최원옥 이호석 심영란 조정남 오유민 이창훈 대각씨앤디 이수미2 강쌍범 이지선 이태현
최상태 이춘달 최홍래 이영수 김석순 변인섭 주동강 구영숙 이윤봉 강현성 이상근 박요선 김복선 이충림 왕한석 이영미
신창환 홍세표 이성환 이숙이 김인호 남정우 최재섭 변재범 이상백 이재동 양수미 최재섭 김달순 전억수 성양원 김순점
진순옥 이성인 원혜정 이우종 연화주유소 김향숙 고난조 최인선 박향진 이순복 이용성 김용진 정성중 김순점 조점이
이경순 김진환 김재호 김철영 전경도 강순자 김희정 박향진 정숙향 손윤기 박정숙 성우근 전부근 김오수 윤정수 임막순
이계순 청호건설(주) 김경순 최성근 이우호 김설영 원찬섭 최연익 백상호 이상태 거성실업 주신옥 이연식 김무림 연화주유소
이문희 장원주 안미경 한은주 박지훈 이한준 김소연 정정순 정의순 강효상 윤정향 최숙자 김재룡 윤석근 박은정 박보영
이향래 김대수 공인배 서도순 이영숙 차기훈 김정옥 김민호 김인수 김옥화 홍순화 이수연 정정숙 박정현 조민주 박태남
윤상일 박철홍 정지숙 박진희 임화연 이계숙 노영도 호전종합건설 제낙울 허광도 강정덕 문은자 윤복연 노주현 강성진
안웅호 김수동 허귀임 허미라 구나윤 김수정 김수현 안중연 정유섭 박우찬 황기석 황순자 권옥순 장순이 민영인 박진아
제성호

2010년 12월 강옥환 문미경 이한준 김성호 강갑순 구정숙 (주)동명특수강 이수미2 남경남 김진영 이영자 황종관 김용진
김용호 하윤숙 명정식 왕한석 정인숙 심영란 민영인 서진호 노두섭 김대수 조성민 조재영 이태호 박우진 최상태 이현숙
윤상일 강정덕 객선자 석불사 조재경 노춘식 이태호 윤정자 조정남 이재동 정미순 권종영 김태형 객진중 정숙자 이태호
최영희 이춘달 김유식 박보영 최영희 박옥림 김문기 주영선 엄시흠 이계순 이상근 강순자 김순희 온도석 김혜숙 정순자
공남이 (유)한국산업 강현성 이충림 김명순 이영수 손혜숙 홍영남 김옥순 하상개 최운경 이영자 이숙이 고난조 남정우
김주애 게 명곡목재 김영완 김만식 이지은 조점이 박은정 진순옥 성명숙 이상흠 치마저고리 김금자 최효심 김수동 정숙향
박종식 최성근 박정숙 김중선(제이에스무역) 이무제 정인숙 김승선 김재룡 거성실업 이상근 최인선 김태성 이미경 서상희
강도식 이창식 한은주 김말순 박귀은 김복선 대각씨앤디 한선희 박종근 김재현 강도식 호전종합건설 김정옥 서도순 김설영
강숙애 정창민 강쌍범 김정순 김금자 차기훈 윤석근 윤정향 이순복 최재섭 박종문 주동강 강옥중3 배말순 조민주 박지훈
이미영 박정숙 박향진 제금자 김수현 이병선 전판식 이상태 박재홍 하부영 변재범 박동준 양채심 이성인 강연옥 이원형
황기석 성우근 김민호 김소연 김유식 김병호 이상백 김익민 조성진 최상숙 정정순 최연익 이창훈 강현성 백상호 이용성
이재정 조원익 이성환 이향래 오유민 홍순화 김순점 이영숙 김오수 김경현 조필준 정정숙 김무림 박요선 김진환 강대웅
이호길 이영미 박현숙 조성진 장시경 김옥화 허광도 장연주 윤정숙 박정현 원찬섭 최경녀 조원익 변인섭 문은자 방이호
성양원 김민자 노영도 이갑도 이호석 조필준 윤복연 정지숙 윤정수 김석순 김순찬 안웅호 이문희 백금옥 조성진 이계숙
장영수 최홍래 김철영 김희정 박우찬 객진중 이태현 조원익 허성순 (주)동아기업(대표이우중) 장원주 김인수 이민자 강성진
임영연 이윤봉 조필준 김보열 청호건설(주) 김인호 박철홍 이승진 구나윤 강효상 홍세표 김명용 박국원 윤진란 전억수
이위수 황진두 장순이 황순자 양수미 안호순 정정자 이우호 이미애 전부근 김애숙 허미라 공인배 정성중 최연경 심규나
김수정 신창환 이연식 이봉자 권순옥 임화연 김희정 양승원 정귀남 제낙울 원혜정 연화주유소 김주희 박경자 이수연
문상필 조성원.조희나 장인옥 양유경 김용진 정의순 윤라미 정용훈 노주현 임막순 권현옥 한학조 김연순 김현식 윤원준
김해원 최원옥 안중연(한마음치과) 이승진 허영형 서양순 김유식 김보열 정정숙 강미숙 이지선 제성호 황진두 정화원
남태석 허혜자 사랑자비 한판현 문상필 구영숙 장향선 김애숙 정병하 허성란 양미모 김정재 이계순 최영숙 윤정숙 허귀임
이봉자 주신옥 황정숙 이경순 김석연 윤정자 이호길 김민자 김도일 김주희 김나경 박진희 손윤기 강필환 김재호 윤지희
김순찬 이용진 윤라미 김민진 문경련 최은지 안규철 백장흠 백금옥 김희정 팽정옥 김해원 김지호 김향숙 정영숙 김현주
홍은정 한행자 박경식 김순권 강미숙 김선숙 최인미 홍정숙 문갑례 강대균 윤지희 이민자 이두래 이해경 윤숙열 구미자



일반후원금(시설)

■ 2010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내역(시설) ■

2010년 1월

정차호 한행주 구창국 차춘자

2010년 2월

정차호 진주보건대학 이성조 이갑희 고은별 한행주 구창국 조성해 차춘자

2010년 3월

남해정 이성조 이갑희 정차호 부전식당 한행주2 권현망수협 조성해 남해정 차춘자 이성조 이갑희

2010년 4월

정차호 한행주 구창국 이마트단체지원금 조성해 남해정 차춘자 이성조 이갑희

2010년 5월

정차호 고은별 해피빈 한행주 구창국 조성해 차춘자 남해정 이성조 이갑희

2010년 6월

최규현 박연찬 정차호 부전식당 구창국 한행주 김동진 조성해 조혜자 최규현 한신에 차춘자 남해정 이갑희
이성조 두산큰사랑회

2010년 7월

구창국 정의순 박연찬 배영림 정차호 부전식당 해피빈 한행주 구창국 김동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이마트단체
지원금 조혜자 조성해 차춘자 최규현 남해정 두산큰사랑회

2010년 8월

이성조 이갑희 송외순 박연찬 배영림 김희정 부전식당 김해원 구정미 한행주 구창국 고은별 조성해 안중숙
조혜자 김동진 추광식 양정화 황현숙 박효주 남해정 차춘자 이성조 이갑희 두산큰사랑회 최성락

2010년 9월

정차호 임화자 한행주 박순연 양정화 차춘자 김해원 황상규 배영림 구창국 최규현 조성해 박효주 남해정
박연찬 부전식당 고은별 조혜자 추광식 황현숙 두산큰사랑회 최성락

2010년 10월

이성조 김월선 조경훈 구창국 이마트단체 박효주 최규현 이갑희 정보원 두산큰사랑회 조혜자 추광식 차춘자
양정화 배영림 박연찬 한행주 조성해

2010년 11월

황현숙 이성조 배영림 김동진 구창국 조혜자 최규현 김해원 이갑희 김희정 정의순 강옥환 차춘자 양정화
남해정 박연찬 거성실업 부전식당 김재현 황인관 박효주 한행주 황인관 해피빈 한행주 조성해 추광식 황현숙
김해원 남해정 이갑희 이성조 최성락 두산큰사랑회

2010년 12월

조경훈 최영희3 김보열 이용수 양선자 황인관 박종태 전원이 구창국 고성군지사 공상민 최규현 창원전문대
조경훈 우양순 박진한 대한지적공사 옥천사 최성락 차춘자 황현숙 김향이 한행주 불여사 여성합창단(고성)
조성해 박효주 김해원 박연찬 구창국 박복돌 황기석 양정화 금돼지(공인중개사) 두산큰사랑회 배영림 선미숙
하창식 김용규(동일카) 조혜자 김숙림 강홍석 부전식당 정차호 용문사 함께가는길 추광식 공동모금회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결연후원금내역

2010년 1월 ~ 12월 결연후원금 내역(아동 결연후원자)(시설)

강옥환 : 민병준, 민수빈, 김인왕, 김인제제, 김인시후, 오슬기	원종운 : 한승민
강승규 : 김백천	윤다혜 : 유관중
강옥자 : 박정민	이영빈 : 김백천
강성길 : 박지우	이정화 : 김철영
김형수 : 김 신	이화옥 : 김 신, 김철영, 신영주
김흥구 : 박정민	이희옥 : 배희승
김수희 : 최민서	이관용 : 임정재
김경미 : 이정현, 신영미	이숙진 : 김고근
김인순 : 박경주	이선제 : 황경선
김양언 : 정진미	장익렬 : 이기소
김외경 : 박민승, 박유영, 신경이	장원석 : 석원진
김문례 : 석동인	정수경 : 백인한, 백인석
김봉환 : 김동천	정유섭 : 황재균
김주열 : 김영천	조규열 : 신영주
김종복 : 박지환	하정숙 : 정다운, 신민규, 김효림, 박유영
김영숙 : 유승영	하우순 : 박의렬
권오자 : 이태승, 이경은	하린영 : 박지환
권현자 : 최민서	하충훈 : 박지우
공우상 : 김동천	황경수 : 김광일, 신민규
곽진희 : 장운영	황희영 : 유승민
남정우 : 오슬기	최태운(최영란) : 이기소, 이종섭
노동희 : 양진우, 최성진	주식회사(원) : 장운영, 박경주
노유란 : 최민서	호성기계 : 박사훈
박명연, 박정하, 박순자 : 박지우, 박사훈	신아정밀(주) : 김성환
박명주 : 김효림	삼성테크원 : 김광석, 김원영, 김성일, 김형택
박민서 : 유관중, 이정현	어린이재단 : 석동인, 박사훈, 이수현, 한승민, 김동천, 황재균
박국원 : 이동훈	
박세현 : 박용환	
성순남 : 박사훈, 김 신, 김철영	
서정한 : 박의렬, 박경주	
손성욱 : 김홍래	
손진일 : 박지우	
손진우 : 신영주	
송준영 : 임정재	
신중섭 : 장운영	
안성호 : 박지원	
양순자 : 김백천, 김영천	
유화진 : 김철영	
옥영준 : 전주영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자명단

2010년 1월 ~ 12월 물품후원

1월

관음사(마산), 배진표(나루기획), 이정화 복지사, 보천사(전주영연고자), 농업기술센터, 한독약국(고려당), 강숙이.손금옥, 박상범, 한두련, 강설인, 송병옥, 옹하한의원, 노벨서점, 대한건설협회, 작은사랑, 신영미, 영주 연고자, 오슬기, 수정 연고자, 나눔의향기, 미타사, 김경미, 김미정(윤강호), 배두한의원, 강경숙, 청연암, 대한양돈협회, 전성애, 틈새사랑, 영농식육점, 경남축구협회, 윤정남, 불명, 최근철, 보련회, 박말출, 마산적십자회, 좌이마을, 이영빈 복지사, 김지연(김지은), 우산반점, 푸드뱅크

2월

한독약국(고려당), 박용주 복지사, 외환은행(진주), 삼별회(양진우후원자), 수양모텔, 염용하, 문길수, 진주 정법사, 진주관음사, 신우회, 최상숙, 김봉수, 도청기업지원과, 이정화 복지사, 최을림, 고성군의회장(제준호), 염용하, 동명한의원, 개천면장외1명, 월드마트, 작은사랑회, 불심회(마산교도소), 김준식 복지사, 강숙이, 노유란 복지사, 김미정외2인, 문병식, 이정화 복지사, 이옥자, 전성애외1인, 나눔의향기, 르네시테(미라클), 소원성취사(항도사포함), 푸드뱅크, 정선옥, 고성은덕암, 부산선광사, 금곡미소치과, 틈새사랑, 반성관음사(모영점), 보련회

3월

한독약국(고려당), 동명한의원, 통영연화사, (주)원, 박수진, 김지인 복지사, 관음사(마산), 김수명, 김길호, 영농식육점, 작은사랑, 성운선, 윤덕점, 보리수회, 양순자, 김상진, 박용주 복지사, 이정화 복지사, 항도팔각회, 동명식품, 김집, 전성애, 이옥자외1인, 푸드뱅크 동명한의원, 조재범외2명, 정토만일회, 박정민 연고자, 윤정남, 윤호병, 아동연합회, 틈새사랑

4월

한독약국, (주)원, 문병식, 신우회, 옹하한의원, 아동연합회, 청연암, 권현옥산부인과, 푸드뱅크, 작은사랑, 동명한의원, 윤덕점, 나눔의향기, 세진암, 정의순, 경남아동연합회, 영농식육점, 강신홍, 장수한의원, 무주사, 고성사회복지연대, 전성애, 윤원상(안성사업연합), 만경영농조합법인, 우산반점, 이정화 복지사, 봉림사관음회, 사천죽림사, 주정은(창원전문대), 강설인, 보련회, 창원전문대(경영과), 틈새사랑, 무학사, 불명, 신양순(정촌), 정진점(진주). 진주외환은행

5월

마산관음사, 손금옥.강숙이(창원), 옹하한의원, 한독약국(고려당), 정진점, 최을림, 동명한의원, 진주안경원, 최근철, 김지인 복지사, 박종선, 박정임, 최상숙, 영농식육점, 동명한의원, 패스트몰, 이옥자외1명, 빠라디소, 정의순, 두산중공업, 삼정자 초등학교, 틈새사랑, 윤정남, 보련회, 진주관음사(모영점), 정의순, 무학사, 푸드뱅크, 강미석(정토만일회), 사천식물원, 우산반점, 보리수회, 두산큰사랑회, 민기석외3인

6월

윤영식외1인, 의령삼보본사, 신우회, 동명한의원, 고성생명환경농업, 강숙.손금옥, 한독약국(고려당), 박태경, 작은사랑, 빠라디소, 팔봉회, 윤덕점, 김해최을림, 김지인 복지사, 우산반점, 진주뚜레쥬르(개양), 이옥자외1명, 전성애, 김미선, 영농식육점, 보련회, 틈새사랑, 무학사, 푸드뱅크, 두산중공업

7월

한독약국(고려당), 경남아동연합회, 동명한의원, 불선암, 삼별회, 마산관음사, 불명, 강숙이.손금옥, 동명한의원, 배영수, 푸드뱅크, 윤덕점, 보리수회, 김혜란, 조기범, 모영점(반성관음사) 전성애, 이옥자외1인, 김석규, 의령삼보본사, 김해감독, 민기석, 봉림사관음회, 축구협회, 보련회, 박덕해(박지원고모), 불명, 샤프론봉사단, 무학사, 이정화 복지사, 강설인, 윤정남, 고성 던킨도넛

도움주신분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2010년 1월 ~ 12월 물품후원

8월

문병식, 선각스님, 한독약국(고려당), 정의순, 김해FC화랑부모님, 강진민들레식당, 틈새사랑, 불명, 고성 던킨도너츠, 최상숙, 한마음조리연구회, 푸드뱅크, 동명한의원, 강숙이.손금옥, 우산반점, 마산송학관, 서양순, 아동연합회, 이옥자외3인, 유상렬, 강승규 복지사, 작은사랑, 만경영농조합, 작은사랑, 보련회, 무학사, 강민호, 마암신리보건지소장, 마산용문사, 두산함께가는길회, 이상민연고자, 염용하, 대구법장사(도견스님), 광동수국장

9월

푸드뱅크, 동명한의원, 김재옥, 무주사, 마산관음사, 박효주(사과), 한독약국(고려당), 강숙이.손금옥, 이세영(고성아트어린이집), 용하한의원, 강홍석(진해) 고성군, 윤덕점, 김대용, 구순용, 장복남, 푸드뱅크, 손금옥.강숙이, 영농식육점, 최상숙, 윤정남, 두산법우회, 성윤선, 보리수회회장, 개천면, 고성군의회, 하부영, 김상진, 손양곤법률사무소, 정진점, 고성농협기술센터, 김해 최을림, 불심회(마산교도소), 박수영, 외환은행(진주), 부산생활선원(남현스님), 전성애, 김상진, 작은사랑회, 경상대(정치외교학과) 학생들, 경남FC감독(김수민), 김해FC(학부모), 보리수회장, 김지인복 지사, 부산생활선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

10월

문관수, 정선옥, 정의순, 한독약국(고려당), 이정화 복지사, 강숙이.손금옥, 조선례, 한마음집, 강옥희(다도), 장석식(산적님 지인), 최상숙, 조기범, 김해FC화랑부모님, 안정숙, 송림탕(진주), 작은사랑, 동명한의원, 최을림, 우산반점, 전성애, 김영수회장(김해봉사단체), 배남옥, 이옥자, 이세영(고성아트어린이집), 동명한의원, 김지인 복지사, 엔조이맘, 빅마켓, 보련회, 박태봉, 무학사, 대구시지대리점, 홍영표이사, 김미선, 경남아동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 개천된장, 틈새사랑

11월

농업기술센터, 용문사, 이경은연고자, 황토떡집, 마산관음사, 마암 최규원, 대한양돈협회, 박철우 복지사, 강숙이.손금옥, 김집, 동명한의원, 작은사랑, 윤덕점, 전성애, 김경미, 이옥자외1인, 배남순, 구순영, 최근철, 이정화 복지사, 하영도, 무학사, 오성종합건설, 우산반점, 김미진, 이병숙, 강영순, 우산반점, 틈새사랑, 동명한의원, 윤정남, 박성태조합장, 국민생활체육회, 민병준모친, 황흥점 복지사, 원명스님 지인, 보련회, 공상민, 강승규 복지사, 이정화 복지사, 안중숙,

12월

김형석(마산내서공판장), 어득수연고자, 영농식육점, 국민생활체육회, 안정애, 한독약국(고려당), 추성숙, 석불사, 신우회, 거성실업, 송병욱, 관음회, 삼휴합장, 정선우, 정형석과장(내서공판장), 장점순, 신행자, 불곡사차밭회(창원), 박상범, 박효주, 윤상일, 두레주르, 두산중공업, 동명한의원, 불여사, 윤덕점, 박효주, 박일선(경남시민봉사여단), 강숙이.손금옥, 틈새사랑, 최상숙, 이상민연고자, 용문사, 경남은행, 보리수회, 전경도, 박식(대아기계), 박덕영(신암농장), 신평마을, 최근철, 전성애, 이옥자, 하영도, 강맹구, 이세영(고성아트어린이집), 최근철, 최을림, 김지인 복지사, 동남지방통계청(통영사무소), 외환은행(진주), GS생활(주), 용하한의원, G마켓(고양내), 진불청, 박국원, 강옥희, 정영숙, 무학사, 무주사(삼휴스님), 국제골포라이온스, 무주사, 푸드뱅크, 차밭회(고성), 모영점(반성관음사), 마산큰병원, 노벨서점(고성)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1. 해피빈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 해피빈이란?

해피빈은 3,500만 네티즌과 공익 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 해피로그란?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들의 블로그입니다.

♡ 콩이란?

콩은 온라인 기부아이템을 뜻하며,
콩 1개 =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콩 모으는 방법은?

첫째, 네이버에서 콩메일을 쓰세요, 매일 한 통으로 콩 1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in 답변하기에 참여하고 콩을 모읍니다,
셋째, 네이버와 해피빈 곳곳에 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고 콩을 받습니다,
넷째, 매달 15일 해피빈 기부day에 참여하고 콩을 받습니다,
다섯, 카드 포인트(B카드 포인트, K카드 포인트)를 콩으로 바꿉니다,
(100포인트 = 콩 1개)
여섯, 소액이라도 내가 가진 현금, 네이버 코인으로 콩을 충전합니다,
(100원 = 콩 1개)

♡ 참여 방법은?

첫째, 콩 모으기

네이버(www.naver.com) 로그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 모으기 (자신이 보유한 콩에 대한 정보는 MY 해피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콩 기부하기

보리수동산2010 가기 (해피빈 검색창에서 '보리수동산' 검색) ... 보리수동산 2010 해피로 그 ...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기부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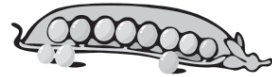
보리수동산 후원금은 여러 가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어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모두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해피빈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물받은 콩을 기부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충전콩을 선물하신 분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후원캠페인을 통해 받은 콩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2. 이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보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

♡ 이마트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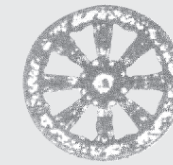
첫째, 이마트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무인적립기에 갑니다,
둘째, 화면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 '보리수동산 지정번호(진주:239, 마산:5)' 클릭
셋째, 화면 아래 바코드 인지 면에 영수증 맨 끝에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확인' 을 누르시면 끝~

지점명	기관명	지정번호	연락처
마산 이마트	정토만일회	005	055-711-1234
진주 이마트	보리수동산	239	055-749-1234

♡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깜빡하고 있으셨을 경우, 경남 고성군 옥천사내 청련암이나 보리수동산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 분기별로 영수증으로 모아서 마산과 진주에 있는 이마트에 적립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정토만일봉사회

회 장 강 미 석

638-980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 화 : (055) 672-0078 팩 스 : (055) 672-1308

사랑과 꿈을 나르는 보리수회

회 장 변 점 용

창원시 소답동 105-1 송백해피빌 202호
휴대전화 : 011-871-3033

한마음치과

원장 안 중 인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03-62
☎055-762-2875

변재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1호
영창빌딩 2층
☎055-264-0390~1

BK건설주식회사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전문소방
대표이사 이 충 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104-1 KT서창원지점 4층
☎055-237-7801~3

(유)대 보

대표 박 문 순
경남 마산시 봉암동 376-6
☎256-0733

서진호 의원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611-202
☎673-1977

이상흠이비인후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자산빌딩 2층
☎674-7933

권현옥 산부인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582-1 경남은행2층
☎743-7567

거성실업

대표 김 영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1130-12
☎782-3760

이 일 수

(순환기내과 과장/전문의 의학박사)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70-1253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상남도 본부
고성군지사
☎673-3539

(주) 두산중공업

큰사랑회 · 법우회
봉사단체

학우문구센타(창원점)

대표 노 동 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19-12
☎267-9799

정원물산

대표 최 규 원
경남 마산시 합성동 327-17
☎299-9051~3

국제 로타리3720지구
창원성산로타리클럽

株式會社日光電氣建設

사장 김 선 일
진주시 상평동 203-3번지
☎755-7766, 011-583-6632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국제 로타리3590지구 진주축석 로타리클럽 경남 진주시 봉곡동 23-13 ☎055-749-2468	개 천 된 장 김향숙, 탁동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518 E-mail : gcdj@naver.com ☎055-672-5459, 011-9332-3500	(주) 동명특수강 대표 이 성 갑 경남 진주시 상평동 158-20 ☎055-753-8822~3, 762-3344~5 취급품목 :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마한봉
진주작은사랑 인터넷동호회 daum.net/love4i 봉사단체	틈새사랑 요리체험학습 & 생일행사 봉사단체	프로스팩스 박 상 범 김해시 안동 360-1 국제상사물류센터 ☎016-551-6024
무 학 사 학봉스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산50 ☎583-2113	松園가든 박 재 홍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375-3 (골프장 입구) ☎753-9339, 759-9288, 011-9503-9776	수 양 모 텔 이 재 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673-0781
국립진주산업대학교 부설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허 익 구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751-3699	박 형 목 대한투자증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2 뉴올림피아타운 1층 ☎279-0700	淸光 畫室 淸光 金 容 大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811-24 ☎051-466-8467, 011-594-5468
(주) 세 창 악 기 대표이사 최 호 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1030-1번지 Tel 055-271-6881~4, Fax 055-271-4186	한양한방병원 이사장 김 성 술 사회복지법인 한양복지재단 한양한방병원 경남 진해시 풍호동 773번지 ☎546-4630, 546-0140	변호사 손양곤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1 ☎055-762-8866
제증당한의원 한의사 이 병 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8-9번지 ☎055-672-3689	동 명 한 의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980-19번지 ☎031-732-0772	Beautiplex 뷰티플렉스 대 표 강 숙 이 경남 마산시 월남동 5가 4-8번지 ☎055-245-8743
자동차/화재/자금대출/적금/연금 LG화재 도동영업소 대리점 대표 김 점 연 경남 진주시 평안동 168(구, 나포리예식장3층) ☎747-8474, 8475	이엠코리아(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98-3번지 ☎055-582-6221	황토 떡 방앗간 이 화 옥 경남 창원시 대동황토방 상가지하 104호 ☎264-9490, 267-8521, 019-271-9490
경남은행 경상대병원지점 지점장 윤 갑 수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번지 ☎758-6497	반 성 주 유 소 하 창 식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477번지 ☎758-8817, 016-586-8817	韓國精密器械株式會社 대표이사 하 종 식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475-4 ☎582-7871~5, 582-2153~5
문 수 암 성혜스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번지 ☎672-8078	KEB 진주외환은행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번지 ☎055-743-1015	장수한의원 (구)장수당건재 원 장 김 봉 근 마산시 회원2동 578-13번지 ☎248-1997, 248-0855

보 현 사 월전스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암리산1-2번지 ☎673-1192	봉 립 사 운남스님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237-2266	불 곡 사 도홍스님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 ☎282-7402	세 원 암 천우스님 경남 마산시 예곡동 산42-1(불영산) ☎055-221-7730
성 주 사 원정스님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2 ☎262-0208	여 여 정 사 정여스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355-9290	선 광 사 성운스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1동 산8-32번지 ☎051-302-5657	옥 천 사 진성스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672-0100
진주장애인복지관 성공스님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4 ☎749-2114	창원봉림사관음회 회장 최 창 우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018-560-5515	칠 불 사 통광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883-1869	동 화 사 허운스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053-982-0101~2
화 방 사 법광스님 경남 고령군 대곡리 1448번지 ☎863-5011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혜근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번지 ☎744-1321	연 화 사 도법스님 경남 통영시 미수2동 44-1 ☎645-6683	천지선원 보운스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742-0511
사천달마사 해일스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72 ☎852-3355	정 인 사 원행스님 경남 마산시 양덕1동 41-2 ☎256-5450	미 래 사 여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33 ☎645-5324	법 료 사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8-1 ☎645-5430
한국제강 대 표 하 성 식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582-6800	불 지 사 경남 창원시 신월동 93 은아A후문 ☎262-6663	만 화 방 초 관리자 정 종 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7-5 ☎051-610-1041~3	부산 생활선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1049-2번지 ☎051-852-009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외외리 331-4 ☎055-674-6050	진주안경원 부산정보대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대표 양정훈 ☎055-753-9555	창원삼정자초등학교 교 장 함 기 호 경남 창원시 삼정자동 484-1 ☎055-264-2362	가람토목설계사무소 소장 윤 외 수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48-11번지 채린빌딩 3층 ☎010-9465-5773
위드건축 대표이사 정 종 영 경남 창원시 상남동 NEST빌딩 1013호 ☎284-4000	한국산업 경남 창원시 상남동 23-7번지 토토스빌딩 12층	가마골솥불촌 대표 윤 중 갑 경남 창원시 가음정 본동 520 ☎282-8100	영농식육점 대표 박 범 기 경남 사천시 정의리 389(시장통내) ☎852-0621
개천우체국 국 장 정 종 필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5 ☎672-0001	죽 립 사 자문스님 ☎834-3254	백 운 암 지정스님 ☎852-3226	관 음 사 명전스님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장촌리 630번지 ☎754-6355
국 관 사 보련스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산12 ☎852-1049	금 강 사 성원스님 경남 거제시 신현동 수월리 216 ☎636-8634	백 리 향 대표 윤 호 병 경남 진주시 하대동 304-5 ☎055-763-3888	무 주 사 랑천스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3동 275-543 1동3번 반송빌라 ☎051)532-6563
미 립 암 정연스님 경남 진주시 가좌동 326번지 ☎759-8243	보 광 사 도홍스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69 ☎674-2864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경남 창원시 팔용동 6-37 동림빌딩1층 ☎273-4900	경남 교사 불자회
마산교도소 불심회 회원일동	연화 교사 불자회 회장 최명림	호전종합건설	강 원 물 류 대표 노주현

법인 및 시설 세입 세출 예·결산 보고

1.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단위 : 원)

2010년도 결산서				2011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재산수입	1,220,000	사무비	3,989,640	재산수입	1,220,000	사무비	51,020,000
후원금수입	118,553,415	재산조성비		후원금수입	133,000,000	재산조성비	251,790,000
		사업비		이월금	330,000,000	사업비	50,000,000
이월금	323,280,333	시설전출금	90,000,000	예금이자수입	8,500,000	시설전출금	95,910,000
예금이자	7,000,392	차년도이월금	356,064,500	잡수입	1,000,000	잡지출	5,000,000
						예비비	20,000,000
계	450,054,140	계	450,054,140	계	473,720,000	계	473,720,000

2.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

(단위 : 원)

2010년도 결산서				2011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보조금수입	905,947,830	사무비	770,399,590	보조금수입	1,009,252,240	사무비	871,737,990
후원금수입	23,868,276	재산조성비	18,986,100	후원금수입	16,600,000	재산조성비	32,500,000
법인전입금	90,000,000	사업비	134,315,910	법인전입금	95,910,000	사업비	142,742,250
이월금	7,680,354	교육비	50,554,750	이월금	35,000,000	교육비	71,632,000
예금이자	144,478	프로그램사업	29,437,310	예금이자	100,000	프로그램사업	44,100,000
잡수입	2,033,400	잡지출	207,987	잡수입	9,350,000	잡지출	1,500,000
		차년도이월금	25,772,691			예비비	2,000,000
계	1,029,674,338	계	1,029,674,338	계	1,166,212,240	계	1,166,212,240

「사랑의 후원 보내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안내」

- ♥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금은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후원금은 꿈을 키워가는 보리수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1.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농 협 : 827089-56-006691 예금주 : 강옥환(정토만일회)
법인후원계좌 우 체 국 : 612564-01-000652 예금주 : 정토만일회
경남은행 : 525-07-0087863 예금주 : 정토만일회보리수동산
농 협 : 351-0053-7132-63 예금주 : 보리수동산
시설후원계좌 우 체 국 : 612564-01-001104 예금주 : 보리수동산
경남은행 : 522-07-0084675 예금주 : 보리수동산강옥환

2. 은행간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위 은행으로 계좌간 이체 신청을 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금융 기관에 직접 신청

3. 지로입금

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신청서 및 지로를 보내드리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자동이체 신청

보리수동산 055)673-5321번으로 전화하시어 CMS후원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보리수동산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을 기다립니다」

생필품, 의류, 책, 참고서, 신발, TV

「보리수 동산은....」

보리수동산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만 18세이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 시설입니다. 우리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지시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기를 나아가야 할 아동들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노출되지 않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발행처 : 보리수동산

발행인 : 승욱 스님

편집위원 : 박말선 · 이영빈